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2월

교육학(음악교육)석사학위논문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현황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채 화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현황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Current Statu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2020 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채 화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 및 현황 연구

지도교수 조 정 은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유 채 화

# 유채화의 교육학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지현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재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정은    인

2019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 목 차 >

### ABSTRACT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의 절차 .....	3
3. 제한점 .....	4
4. 선행연구 고찰 .....	4
<b>II.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유형</b> .....	8
1.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지원사업 .....	8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9
3.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19
<b>III. 연구 방법</b> .....	32
1. 연구 문제 .....	33
2. 심층 면접 참여자 .....	33
3. 심층 면접 질문 .....	37
4. 자료 처리 .....	39
5. 연구 결과 .....	39
<b>IV. 결론 및 제언</b> .....	80

참 고 문 헌 ..... 83  
부록 ..... 86

## 표 목 차

<표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종류 .....	10
<표 2>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2018 지원 현황 .....	12
<표 3>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분야별 자격 요건 .....	13
<표 4>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17개 시·도 분야별 운영기관 .....	14
<표 5>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분야별 지원하는 수업 유형 .....	17
<표 6>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 분야별 지원 현황 .....	18
<표 7>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	20
<표 8>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	24
<표 9> 그 외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프로그램 .....	25
<표 10> 복지기관별 목적과 대상 및 지원 분야 .....	27
<표 1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평가체제 변천 .....	30
<표 12> 연구 참여자의 배경 .....	34
<표 13>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 강사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 내용 .....	38
<표 14> 심층면접 참여자 수업자료 .....	40
<표 15>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연수 경험 및 활용 .....	42
<표 16> 사회문화예술 강사의 교육프로그램의 형태 .....	45
<표 17> 심층면접 참여자의 협력수업의 형태 .....	50
<표 18> 협력수업을 위해 교사 및 담당자과 논의하는 내용 .....	52
<표 19> 심층면접 참여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	55
<표 20> 심층면접 참여자의 강사선발에 대한 의견 .....	59
<표 21> 학교 및 복지기관의 배정 방식 .....	62
<표 22> 학교 및 복지기관에서 예술 강사에게 요청사항 .....	66
<표 23> 예술 강사가 학교 및 복지기관에 요청사항 .....	68
<표 24> 심층 면접 참여자의 교통수단 및 교통비 .....	71
<표 25> 심층 면접 참여자의 연 시수 및 연봉 .....	73
<표 26> 심층 면접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76

## 그림 목 차

[그림 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체계 .....	29
[그림 2] 심층면접 참여자 학교문화예술강사의 배경 .....	36
[그림 3] 심층면접 참여자 사회문화예술강사의 배경 .....	37
[그림 4] 심층면접 참여자 수업자료 활용 .....	41
[그림 5]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연수 경험 및 활용 .....	43
[그림 6] 심층면접 참여자의 협력 수업의 형태 .....	51
[그림 7]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및 담당자와 논의하는 내용 .....	53
[그림 8] 심층면접 참여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	56
[그림 9] 심층면접 참여자의 강사선발에 대한 의견 .....	60
[그림 10] 학교 및 복지기관의 배정 방식 .....	63
[그림 11] 학교 및 복지기관에서 예술강사에게 요청사항 .....	67
[그림 12] 예술강사가 학교 및 복지기관에게 요청사항 .....	69
[그림 13] 심층면접 참여자의 교통수단 및 교통비 .....	72
[그림 14]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 시수 및 연봉 .....	75
[그림 15] 심층면접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	77

## ABSTRACT

###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atus and Current Status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Yoo, Chae hwa

Advisor : Prof. Cho Jungeun, Ph. D.

Major in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status of the operation of cultural and artistic education support projects and the actual status of education sites. To this end, data was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art instructors who participated in social, cultural and arts education project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and proposed.

First, uniformity in the form of cooperative classes recommended by the Korea Culture, Arts and Education Promotion Agency, the main body of the support project for cultural and arts education, and in the form of cooperative classes at actual sites are needed. It specifies that cooperative classes at the Korea Culture and Arts Education Agency will be conducted in cooperation throughout the class, from the planning stage of the class to the goal of the class and the progress of the class. This effectively conveys the educational knowledge of teachers and artistic knowledge of art instructors to learners. However, the results through in-depth interviews showed that classes are held at the beginning of the semester, but classes are

conducted exclusively by art instructors. Therefore, the researcher analyzes that it is necessary to raise awareness of cooperative classes between teachers and art instructors, and proposes compulsory education training on collaborative classes that are shared by teachers and art instructors.

Second, the evaluation of projects supporting school culture and arts education and social and cultural arts education is being conducted differently. The main body of school and soci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is the Korea Culture and Arts Education Agency, but the system of evaluation is also different because the actual operating institutions are different. The evaluation of the soci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 is conducted through the on-site assessment in the form of feedback and written evaluations by agency personnel, learners and art instructors. It is being conducted for the development of art instructors and welfare institutions and soci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s. But evaluations of projects supporting school culture and arts education have not been carried out since 2016. Therefore, this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Korea Culture and Arts Promotion Agency should take charge of the main body and operation of the school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s and social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pport projects.

Third, for the continuity and qualitative growth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the stability of employment of art instructors is necessary. Schools and social, cultural and arts instructor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said they most hope to ease the anxiety of employment. Therefore, the researcher suggests that the government and officials of culture, arts and education need to consult on 12-month

employment contracts and arts contracts of schools and social, cultural and arts instructors.

Keywords: Culture, Arts Education, Cooperative class, Welfare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의 역사는 문화예술의 역사이다. 문화예술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부터 문화예술은 시작되었으며, 인간들은 문화예술을 통해 인간다움을 형성해왔다.(박소연, 홍성만, 임채홍, 2011, p. 2) 즉, 문화예술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즐기고 참여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문화예술교육은 한지혜(2006)에 의하면 인간이 풍요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제공하여 인간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풍부한 인성과 감성을 자극하여 건강하고 전인적 인간을 육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은 감성교육의 수단이며, 다양한 형태의 지성개발을 돕고, 사회생활에 필요한 태도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며, 나아가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도와준다’는 점(박소연 외 3명, 2011 재인용 p. 2; 한지혜, 2006)에서 창의성과 개성을 강조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맞춰 정부는 2005년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국민전체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문화 시민의 역량을 배양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을 하는 대상과 현장에 차이를 보이지만 그 목적과 가치는 같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의 다양한 교과 중 예술교과의 전문성이 있는 강사가 학교 현장의 방문교육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여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소통 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

특히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단순히 엘리트 예술가를 양성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예술적 표현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신주희, 2011, p.2). 현재 학교에서 실시되는 문화예술교육은 대부분 정규교육과정과 방과 후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정규교육과정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체능과목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예체능 과목은 입시라는 교육현실로 인해 중·고등학교에서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예술교육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교육의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지역의 문화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여러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교육은 계속적으로 그 수혜자 규모와 지원의 규모가 커지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는 굉장히 더딘 성장은 보이고 있다(이태화 2016, p.3). 학교문화예술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이해의 미흡으로 학교교육과정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다.(김숙정 2009, 김정선 2012, p.14; 이태화 2016, p.4에서 재인용)또한 학교에서 시행되는 교과교육이나 방과 후 학교를 통해 운영되는 각종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교사의 인식부족과 문화예술 전문강사의 소양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지도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안혜진(2006, p. 26)은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제도 연구에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기능 습득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이에 더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방법론을 충분히 습득한 전문 강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때문에 교육시설별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만족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하였다(안혜진, 2006, p.25-26).

이처럼 현재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강사의 역량과 학교 및 기관의 인식과 관련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그 문제점을 문화예술교육이 현 시대에 큰 가치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실질적 교육 현장과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본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나누어 각각 사업들의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통해 얻은 자료와 현장의 예술강사 인터뷰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하여 발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문화예술교육의 현장과 예술 강사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 2.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예술교육의 적용 실태를 알고자 본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이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및 예술강사에 대한 학술, 학위 논문 및 공공기관 자료 분석을 한다.

둘째, 연구방법을 선정하고, 연구 주제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예술강사들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한다.

셋째, 1차 질문지 작성하여 심층면접 대상자 중 한 명에서 질문을 실시하여 더욱 보완하여 2차 질문지를 작성 하였다.

넷째, 2차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전화 및 대면 인터뷰를 진행한다. 시간은 평균적으로 1:1대면은 한 시간, 전화는 30분으로 제한하였다.

일곱째, 결과 분석 및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의 모든 관계자가 아닌 예술강사가 대상이므로 이는 다른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참여자나 일반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질문지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논문, 기관에서 발간한 연구 보고서 및 선행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기에 검사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에 제한점을 갖고 있다.

### 4.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현황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개선방안은 찾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복지기관 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관하여 연구한 선행논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보라(2019)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하여 문화 소외지역 학생들의 국악 수업 경험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예술강사의 전문성에 따른 연주와 지도를 통해 학생들의 연주에 대한 내재적 동기가 형성되고 연주 욕구가 상승하고 비음악적 영향으로는 친밀감, 자기 효능감, 새로운 자아발견에 대한 긍정적이 효과가 나타났다고 하였다. 또한, 평소에 경험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참여자들에게 다양한 악기의 경험과 생생한 시범으로 학습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였지만, 미비한 수업 공간과 협소한 공연 시설의 한계는 사업의 주체가 문화소외지역의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예술단

제와의 협력을 통해 공연 등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말하였다.

김광중(2017)은 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로, 예술강사의 고용 형태와 고용 주체에 대한 해법을 찾고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충돌하는 현황들에 대해 연구하기 위해 심층면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예술강사의 최저생계비 보장과 제도적으로 예술강사에 관한 노동관련법의 개정,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박소연, 임채홍, 홍성민(2011)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명확화하기 위해 이 사업의 이해관계자들의 현실적 인식을 파악하려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는 학교예술교육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자주 시민의 양성하는 수단인 사회발전정책으로 인식하는 측면과 학교문화예술이 개인의 삶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적인 인식의 측면 그리고 문화예술교육이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본질적인 속성을 지닌 것으로 인식하는 측면이라고 하였다.

유지영(2015)은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술강사 평가체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였다. 예술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평가 유예 제도와 1회의 방문평가와 1회의 서면평가로 시행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현재 활용되는 정량평가 지표는 평가기준과 문항 간의 상관성이 모호하고, 단일 문항의 경우에는 다의적인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평가의 타당성이 저하되는 문제에 대하여 정량평가 척도개발을 제안하였다.

신승빈(2011)은 복지기관의 시설 및 학습자별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나타난 문제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예술교육 기획안과 학습에서는 목표와 기대효과를 혼재하여 사용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불륨의 복합적 교육이론의 요소를 활용하여 프로그

램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은 일년 평균 30회의 활동에 대한 목표가 아닌 방대한 교육 목표를 제시하는 문제에는 예술적, 행동적, 감성적, 인지적의 영역별 목표 설정과 목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최종기획서와 연간 학습계획서에 실제적인 교육방법과 용어의 구체적 개념적 정리 또는 상황에서 조작적 정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용어의 개념정리를 제공하고, 행동통제집단, 발견학습 집단, 합리적 집단으로 구분하여 교육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조대현과 윤관기(2018)는 아동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술강사에 대한 평가와 예술강사의 자질과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논의점 제안을 목적으로 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정량적 평가로 이루어진 교육활동 전반에 대한 예술강사들의 자기평가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정서적 자기평가의 결과는 항목에 따른 내용적 차이가 뚜렷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 예술강사들이 갖고 있는 실기적 배경과 문화예술교육 환경과의 상이함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업주체는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 하였다. 둘째, 예술강사들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사전 준비는 매우 미약하여 음악 교수·학습전략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남에 대해서는 교육학적 배경을 갖고 있는 문화예술 교육사를 적극적으로 선발해야하며, 기능적 실기 위주의 배경을 갖고 있는 예술강사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사 수준의 연주와 지속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노슬기(2018)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생활문화 개념과 비교하며 그 개념과 운영현황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였다. 그 결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 생활문화는 특히 개념적인 부분에서 정립이 되지 않는 문제를 파악하였다. 이에 두 개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 모델로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통합교육을 지향하여 개인에게 새로운 경험과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성 증진과 유연한 사고력 함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하였으며, 생활문화

는 직업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단순히 직업교육을 넘어 문화적 감수성을 통해 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창의성 증진을 이끌어야 한다고 하였다.

## II.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유형

### 1. 문화예술교육의 정책과 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은 ‘예술교육’과 ‘문화교육’의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예술교육은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과 같이 예술 장르별 교육으로 본다. 이것은 곧 미술교육, 음악교육, 연극교육이나 예술영역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교육체계와 관련한 논의 중심의 장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잔 랭거(S. K. Langer, 1971)는 예술교육을 한마디로 감정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무형적이고 총체적인 감정의 범위와 특성을 발전시킴으로써 관념에 사로잡힌 인간의 사고에 창의성, 독창성, 다양성을 이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이정민, 2010 문화예술교육 소비자의 시장세분화에 관한 연구).

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 세대가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가치관, 관습, 의식, 태도, 등의 차이를 문화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것으로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감수성을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김민경은(2008, p.9) 문화교육을 인간의 전 생애에 접하는 모든 학습, 정서, 표현 등과 사회 전반을 포괄하는 교육으로 확장되며, 또한 문화교육은 포괄적인 정신활동의 의미 안에 예술과 사회공동체원 등의 삶의 양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문화교육이 예술교육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문화예술교육은 개인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발달시켜주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의사소통능력 및 공감능력을 길러줄 수 있기에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정다영, 2018).

문화예술교육은 지원의 대상과 장소 등에 따라 사회문화예술교육과 학교문

화예술교육을 구분한다.

## 2.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배경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언어적으로 ‘학교’, ‘문화’, ‘예술’, ‘교육’ 네 단어의 합성어이다. 문화는 음악, 미술, 연극 등의 특정 장르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사회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등을 의미한다. 예술은 미적 감각의 형성시키는 창조적인 활동으로 원래는 어떠한 것을 만드는 기술을 의미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진 문화와 예술을 학교라는 현장에서 교육 하는 것이 학교문화예술교육<sup>1)</sup>이다.

2004년 11월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협력하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예술교육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부서인 문화예술교육 기획연구팀을 설치하였다. 2005년 2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방자치제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부처와의 유기적인 업무수행과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였다.(김소연 한국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천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서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

1) 학교문화예술교육은 예술강사가 초·중·고등학교 방문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종류

학교문화예술교육에는 학교예술강사 지원, 예술 꽃 씨앗학교,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고3 수험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상상만개’ 이렇게 총 4개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있다.

<표 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종류

프로그램 평	사업 목적	지원 규모	지원 대상
예술 꽃 씨앗 학교	문화소외지역의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으로 조성	60개교에 5,180명의 수혜자(2019년 기준)	농·어·산촌의 소규모 학교(전교생 400명 이하)
유아 문화예술교육지원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		만3~5세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지역문화시설
고3 수험생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수험생의 진로 고민의 스트레스 해소	5,384명의 참가자, 프로그램 45회	대학수학능력시험 마친 고등학생 및 수험생

(출처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예술 꽃 씨앗 학교는 전국의 농촌, 어촌, 산촌의 문화적 소외·취약 지역의 소규모(전교생 400명 이하)의 학교를 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 거점학교로 선정하여 최대 4년의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학교문화예술 뿐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예술 향유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외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강사료와 기자재 및 재료비를 지원한다. 유아 문화예술교육 지원은 전 생애주기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대표 사업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시설과 어린이집 및 유치원 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문화적 시설 및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문화예술 장르 전반을 교육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7개 광역지자체,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시·도 문화재단, 지역 문화시설 및 유치원, 어린이집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다. 고3 수험생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상상만개’(이하 상상만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과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고민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입찰을 통해 선정된 운영기관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상상만개는 정해진 지원 분야 없이 패션, 마임, 힙합 등의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중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대표적인 교육지원 사업으로 2000년 강사풀제로 시작하여 2005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된 이후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김민영, 2008 p.3). 2018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8,344개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교육부 인가)에 8개 분야의 5,282명의 강사를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2018 지원 현황

지원 분야	학교 수	강사 수	수업시수
국악	4,513	2,108	607,041
연극	2,073	904	246,657
영화	417	200	48,859
무용	2,066	1,116	307,048
만화·애니메이션	816	385	95,750
공예	642	284	66,557
사진	277	105	20,959
디자인	389	180	36,678
총계	11,193	5,282	1,429,549

(출처 2018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차보고서)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의 연계로 분야별 전문 예술인의 방문 교육을 통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시키며,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소양, 인성·창의력 향상으로 인재를 양성한다. 또한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2008년 이후 정보 재정 지원의 일자리 사업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과 병행가능한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4)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체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진흥원 홈페이지에 의하면 사업의 주체는 진흥원이지만 전국의 17개의 시·도 교육청 및 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각 지역의 지역운영기관(지역단체, 국악단체, 신규단체)지원을 통해 운영된다. 강사선발 및 강사비 지급, 학교선정 등의 일을 지역운영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학군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강사 선발은 각 분야에 따라 주어진 자격요건이 되는 자에 한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과 분야별로 필요에 의해 실기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선발된

예술강사는 연 2번의 연수(교수법, 학습자의 이해, 전공별 교육)를 받는다. 하지만 2017년부터는 기본 및 의무 연수가 시행되지 않고 자율 선택적 연수의 형태로 변경되었다. 분야별 예술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표 3>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분야별 자격 요건

분야	A전형(관련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초등 돌봄교실)	B전형(창의적 체험활동/ 토요일 동아리/ 초등 돌봄교실)
국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li> <li>- 최근 10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 경력자</li> </ul>
연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연극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 분야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li>- 최근 4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 경력자</li> </ul>
영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분야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ul>
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li>-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분야 현장경력이 2년 이상인 자</li> </ul>
만화·애니메이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li> <li>- 관련학과 2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분야 현장경력이 2년</li> </ul>

	-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이상인 자 - 관련학과 3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졸업 후 해당분야 현장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최근 5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
공예		- 관련분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소지자
사진		-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자 - 관련학과 대학원 졸업자
디자인		- 최근 3년 이상 해당분야 현장경력자

(출처 김광중(2017) 예술 강사의 고용·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사 선발 전형은 A와 B로 둘의 차이는 교과수업과 토요일이다. 공예, 사진, 디자인 분야는 교과수업이 없어 A전형은 선발하지 않는다. A전형은 관련분야의 문화예술교육자격, 4년제 대학졸업자, 대학원졸업자로 같은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B전형은 관련분야의 2년제 대학졸업자, 현장경력이 2년 이상 등의 정규 교육보다는 현장 경력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 진흥원에서 선정한 운영기관은 지역과 분야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17개 시·도 분야별 운영기관

지역	분야	운영기관 명
서울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7개 분야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부산	8개 분야	부산 문화예술교육 연합회
대구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대구광역시지회
	7개 분야	대구문화재단
인천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인천광역시지회
	7개 분야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광주	국악	광주광역시 문화원 연합회

	7개 분야	광주광역시 서구문화원
대전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대전광역시지회
	7개 분야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울산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7개 분야	문화예술센터 결
세종	8개	세종시 문화재단
경기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경기도지회
	7개 분야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원	8개 분야	강릉 문화원
충북	8개 분야	충북 문화재단
충남	8개 분야	(사)한국예총 충청남도 연합회
전북	국악	(사)전통문화마을
	7개 분야	(사)전통예술원 모악
전남	8개 분야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경북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경상북도지회
	7개 분야	금수문화예술마을운영 협의회
경남	국악	창원국악관현악단
	7개 분야	(주)문 아트컴퍼니
제주	국악	(사)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7개 분야	서귀포문화원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7개 시·도 중 부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5지역을 제외하고 분야가 국악과 7개 분야(미술, 무용, 연극,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로 나누어 운영되고 있다. 국악 분야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으며 강사의 수와 지원 학교의 수 등 규모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국악분야의 대부분은 (사)한국국악협회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의 분야는 전국의 각 대학교 내의 교육원과 산학협력단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단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은 1~2월에 강사와 운영학교의 배치를 확정하고 운영학교와 강사간의 수업계획을 협의한다. 강사와 학교의 배정 시스템은 운영

학교의 선정이후 강사는 학교와의 거리, 시수, 분야 등을 고려하여 희망학교 신청을 한다. 전남국악협회 공지사항에 의하면 최종 배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순위, 지역, 교육 과정, 세부분야(국악 분야) 2순위, 출강 희망학교 순위(1~3순위) 3순위, 생활권(기초자치단체단위) 4순위, 교급 5순위, 사업 참여 연차 6순위, 근거리이다. 3~12월에는 예술강사의 교육활동이 시행된다. 9~12월에는 내년도 운영학교 선정공고·접수, 강사 선발을 한다. 이렇게 선발된 강사들은 각 학교에 배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 5)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수업 유형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의 수업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기본 교과에는 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 즐거운 생활)이 포함된다. 기본 교과와 연관되는 예술분야이다. 둘째, 선택과목은 기본 교과 이외에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교과목이다. 셋째, 창의적 체험활동<sup>2)</sup>은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이 있다. 넷째, 토요일동아리수업<sup>3)</sup>과 초등학교 돌봄 교실<sup>4)</sup>이 있다.

분야별로 지원하는 수업유형이 나누어져있다. 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학교지원 신청안내에 따르면 기본교과를 지원하는 3가지의 분야 중 연극은 초·중·고의 모든 수업 유형(기본교과, 창체, 토요일동아리, 돌봄 교실, 선택과목)을 지원하며, 국악은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무용의 경우 고등학교의 기본교과와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4). 기본교과를 지원하지 않는 5개의 분야 중 만화·애니

2) 창의적 체험활동을 교과 수업 이외의 시간에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등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교육 활동이다.

3) 학교의 재량에 따라 교과 수업이외의 시간에 동아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초등학교 내에 전담교사가 방과 후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제도이다.

메이션과 영화는 초·중·고의 기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하며, 공예, 디자인, 사진은 초·중·고의 기본교과와 고등학교의 선택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분야별 지원하는 수업유형

분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본교과	창체	토요동아리	돌봄교실	기본교과	창체	토요동아리	기본교과	선택과목	창체	토요동아리
국악	0	0	0	0	0	0	0	0	X	0	0
연극	0	0	0	0	0	0	0	0	0	0	0
영화	X	0	0	0	X	0	0	X	0	0	0
무용	0	0	0	0	0	0	0	X	X	0	0
만화	X	0	0	0	X	0	0	X	0	0	0
공예	X	0	0	0	X	0	0	X	X	0	0
사진	X	0	0	0	X	0	0	X	X	0	0
디자인	X	0	0	0	X	0	0	X	X	0	0

(출처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

2019년 전남의 경우 총 866개의 학교 중 342개교가 국악을 지원하였으며 그 중 36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신청한 학교 이외는 기본교과를 신청하였다. 선택교과의 경우 만화와 영화분야가 신청하였다. 기본교과인 무용, 국악, 연극을 제외하고 5개의 분야 모두가 토요 동아리를 신청하였고, 초등 돌봄교실은 공예와 영화 분야에서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6> 분야별 수업 유형 지원 현황

분야	학교 수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 동아리	돌봄 교실	선택교과
국악	342	36			
무용	187	51			
연극	123	52			
디자인	34	33	1	X	X
만화	62	50	5	X	7
사진	19	18	1	X	X
영화	49	43	3	1	2
공예	70	59	6	5	X

(출처 (사)한국국악협회 전라남도지회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 6) 협력 수업

협력수업은 수업을 구상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교사들 간의 상호보완적으로 서로 협력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협동수업 또는 팀티칭이라고도 한다. 이에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에서의 협력수업은 교육적 지식을 갖춘 학교의 교사와 예술적 지식을 갖춘 예술 강사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협력수업은 학교라는 특수성을 가진 장소와 학교 교육과정 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교육운영가이드에 의하면 예술강사는 예술의 기능적인 부분을 맡아 지도하는 업무로 단독 수업이 불가하며 교사의 교육전문성과 예술강사의 예술전문성을 상호 보완하는 수업을 강조하고 있다(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협력수업 가이드). 하지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에 대해 교사와 예술강사에게 협력수업에 대해 권고만 할뿐 명확한 교육은 실시하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는 협력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협력수업의 원활한 진행에 있어서는 교사와 예술강사의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 3.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1)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 및 배경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앞에 학교문화예술교육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화예술을 사회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문화예술로 소통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여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sup>5)</sup>을 시작으로 2010년에는 지원대상이 일반시민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현재는 25개의 사업으로 다양한 계층과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2)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종류

사회문화예술은 복지기관문화예술 지원, 노인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지원, 군부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 지원,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지원,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 지원,

---

5) 문화예술교육의 기회가 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예술교육 사업으로 대표적으로 농·어촌 문화예술교육, 노인문화예술교육 등이 있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 지원,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화과출소 운영 지원, 농·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지원,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분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으로 총 25개의 사업이 있다.(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9)

### 3)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대상별 분류

본 연구에서는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을 제외한 24개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지원 대상별로 분류한다. 청소년, 군인, 직장인, 근로자 등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의 문화적 발전과 활성화와 같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 분류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그 외로 구분한다.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병무청,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같은 국가기관과 문화예술 전문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이와 같이 주요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7>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명	대상	지원규모(2018년 기준)	협력기관
군부대문화예술교육지원	군 장병	총 334개 이내 시설, 335개 프로그램	병무청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지	교도소 재소자	52개 시설, 53개 프로그램	법무부 사회복지과

원			
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지 원	치료감호 소 환자	2개 시설, 8개 프로그램	법무부 치료처우과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지 원	소년원학 교 학생	11개 시설, 22개 프로그 램	법무부 소년보호과
근로자 문화예술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30개 이내 시설, 30개 프로그램	산업통상지원부, 한국산업단지공 단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 원	아동·청 소년	21개 시설, 21개 프로그 램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 과
학교 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 원	학교 밖의 아동·청 소년	71개 시설, 74개 프로그 램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 과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지 원	문화적 소외지역 의 아동·청 소년	630개 내외 시설, 693개 프로그램	보건복지부 아동관리과,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지 원	북한이탈 주민	7개 시설, 9개 프로그램	통일부 정착지원과, 남북하나재단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지 원	국가유공 자	7개 시설, 9개 프로그램	국가보훈처 복지정책과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지원	범죄의 피해자	부처협력형 문화예술치 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6 개 협력 부처/기관, 66 개 시설, 74개 프로그 램, 740명 지원(예정) 치매예방형 문화예술치 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사업

		24개 시설, 24개 프로그램, 240명 지원(예정) 기획형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사업 22개 시설, 22개 프로그램, 220명 지원(예정)	
<b>꿈다락 토요문화학교</b>	지역의 아동과 가족	167개의 프로그램, 7,831명의 참여자	17개 시·도 지역문화예술교 육지원센터
<b>꿈의 오케스트라운영 지원</b>	지역의 아동·청 소년	43개의 거점기관, 2,701 명의 참여자	지역 거점 문화예술관련 단체 및 기관
<b>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b>	직장인		운영대행사 선정(남의집프로 젝트)
<b>노인 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지 원</b>	노인	전국12개 미디어센터, 16개 프로그램 지원	(사)전국미디어 센터협의회 회원센터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군부대문화예술교육지원은 군 장병들의 즐겁고 보람찬 군대생활을 위해 병  
 무청과 협력하여 진행한다. 교정시설 문화예술교육지원은 교도소의 재소자들  
 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복귀를 돕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사회복귀과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치료감호소 문화예술교육지원은  
 심신 미약 등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환자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심신의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를 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법무부의 치료처우과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소년원학교  
 문화예술교육지원은 소년원학교의 학생들의 좌절감을 극복하고 자아성취감을  
 갖도록하며 법무부의 소년보호과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근로자 문화예술지원은  
 산업단지의 근로자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이를 통해 소속감과 자긍  
 심을 높여주며 이사업은 산업통상지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력하여 진

행한다.

방과 후 청소년 문화예술교육지원은 여성가족부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과 잠재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학교 밖 청소년 문화 예술교육지원은 가출, 자립 등 학교 밖의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사회적으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돌봄 기능으로 확대되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예술교육지원은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지역의 아동들에게 문화적 소외감을 없애고 자존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학교 밖의 아동과 그의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이 있는 주말을 통해 가족 간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이 음악을 통해 성장을 통해 건강한 사회의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북한이탈주민 문화예술교육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사회문화를 이해하고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통일부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상이군경 문화예술교육지원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며 영예로운 노년기의 삶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국가보훈처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지원은 학교폭력, 가정폭력, 범죄사건의 피해자들의 심리적 상처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심리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직장인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노인 영상미디어 문화예술교육지원은 지역미디어센터와 연계 하여 노인들이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기 표현을 하고 노인계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다.

다음은 지역의 문화적 활성화와 문화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다.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8>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명	사업목적	지원규모	지원대상
문화파출소 운영지원	문화, 치안, 시민참여로 문화안전망 및 문화예술교육 나눔	9개 운영단체(2개 지연재단 및 5개 민간단체), 경찰청 협력	해당지역 및 지역주민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문화적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가 문화적 격차를 줄임	총 4개 이동수단(버스, 탐차, 트럭, 병원선), 8개 프로그램 150회 운영	전국 농어촌 및 도서지역의 노인, 아동 및 지역주민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획으로 시민들의 여가문화생활 조성	17개 시·도 운영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을 통합적 관리 및 지역대상 컨설팅	17개 시·도 617개 프로그램, 35,606명의 참여자(2017년 기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이 가능한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지역의 특성 및 수요를 고려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17개 시·도 402개 프로그램, 7,422명의 참여자	문화예술교육 운영 역량을 가진 단체 및 시설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문화파출소 운영지원은 문화와 치안 등으로 문화안전망을 구축하여 문화예술 나눔의 공간의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지방청과 경찰서의 협조로 이루어진

다. 논·산·어촌 이동형 문화예술교육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전국의 논·산·어촌의 주민을 위한 사업으로 이동을 하며 다른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사업은 지역에 맞는 문화적 특성을 살려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기획하고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문화예술교육사업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 프로그램 지원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의 통합적 관리와 공유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통해 문화적 네트워크 구축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은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의 역량을 가진 단체나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그 외의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사업,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사업 컨설팅 지원이 있다.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9> 그 외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프로그램

프로그램 명	사업 목적	지원 규모	지원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고 이에 대해 만족도 조사 및 워크숍	105개 문화시설, 105명 문화예술교육사	16개 광역시·도 지자체 및 운영기관
창의예술교육 ‘랩’ 지원 사업	지역의 창의예술교육사업 ‘랩’의 활성화	4~5개 내외의 대상 지역 선정(예정)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대상 선정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지원	예술동아리 역량강화 및 자발적 문화 예술 활동 활성화	980개 동아리, 796명 강사, 83면 코디네이터(2018 년 기준)	17개 시·도 지자체 및 운영기관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자료를 연구자가 재구성)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사업은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사를 채용하고 만족도 조사와 워크숍을 한다. 창의예술교육‘랩’지원 사업은 지역별 창의예술교육 ‘랩’의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발된 콘텐츠의 공유를 지원한다.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지역의 운영기관의 예술동아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예술동아리의 역량강화와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발전하도록, 컨설팅 지원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5개의 지원 사업 중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 4)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개념 및 목적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 24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법적근거로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은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을 시행 하였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복지시설의 아동, 노인, 장애인들이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하고 자신을 표현하며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한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로 나누어지며 기관과 대상에 맞게 그 분야와 목적을 구분한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경우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타인과 소통하는 데에 중점을 두며, 아동 복지시설은 창의력 향상과 자신에 대해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 잠재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기관은 자존감 향상과 삶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는 것에 중점을 둔다. 분야별로 정리한 것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복지기관별 목적과 대상 및 지원 분야

기관의 종류	목적	대상 및 분야
<b>장애인 복지시설</b>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동변화, 정서적 안정, 사회성(협력성, 배려심) 증대, 자기표현기술 증가</li> <li>- 다양한 예술적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찾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타인과 함께 하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를 가진 성인 및 아동</li> <li>- 지원 분야 : 국악, 미술, 연극, 무용, 음악, 영화</li> </ul>
<b>아동복지시설</b>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임시보호시설, 종합시설포함/범인시설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예술교육 체험 기회 확대, 정서적 안정, 문화예술 분야 잠재력 및 소질 계발</li> <li>- 예술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고 예술의 흥미로움과 긍정적인 자극을 체험하며 본인만의 상상력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아동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및 청소년</li> <li>- 지원 분야 : 국악, 무용, 미술, 연극, 영화, 음악</li> </ul>
<b>노인복지관(전국)</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감, 자존감회복,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 경험, 문화향유 욕구 충족 및 사회성의 증가</li> <li>- 참여자의 삶과 이야기를 예술을 통해 풀어내고, 일상과 예술을 가깝게 하며 즐거움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li> <li>- 지원 분야 : 무용, 미술, 연극, 음악, 사진</li> </ul>

(출처 조대현, 윤관기, 아동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현황과 과제, 2018)

문화예술교육에서 사회적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사회취약계층에서 시작해 문화소외계층과 일반인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개인의 예술적 삶의 향유 뿐 아니라 문화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문화예술이 특정인들만 향유하는 것이 아닌 모두에게 제공되며 이를 통해 사람들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여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온 사업으로 학습자 입장에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문화 예술적 소양을 함양하고 질적으로 향상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하는 문화예술교육자들의 문화예술교육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에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 시키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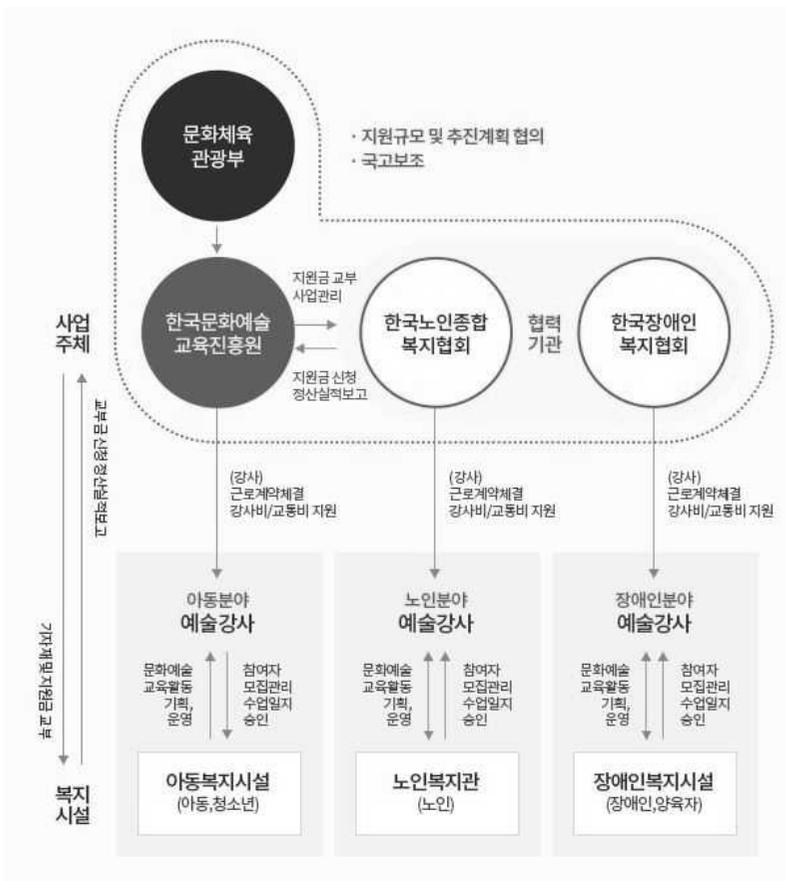
## 5)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체계

문화예술교육지원사업의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지만 한국노인종합복지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협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진흥원은 한국노인종합복지협회(이하 노인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협회(이하 장애인협회)에게 지원금을 교부하고 사업관리를 위임하였다. 또한 노인협회와 장애인협회는 진흥원에게 지원금을 신청하고 정산실적보고를 한다. 이러한 사업의 주체는 각 분야에 맞는 예술 강사를 선발하여 각 시설에 배정 한다. 동시에 예술 강사의 근로계약체결, 강사비 및 교통비를 지원한다.

예술 강사선발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예술영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의 예술 또는 예술교육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 경력이 요구되기도 한다. 2)진

홍원에서 구성한 심사위원단의 서류와 면접 심사를 통해 선발이 된다. 3)선발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기본연수(문화예술교육 개념과 이론 및 방법론, 학습자의 이해 등)가 진행된다. 이렇게 선발된 예술강사들은 사업 주체에 의해 각 기관에 배정된다. 배정된 예술 강사들은 각 시설과 함께 문화예술교육 활동, 기획 및 운영을 한다. 시설들은 참여자의 모집 및 관리와 예술 강사의 수업 일지를 승인 한다(조대현, 윤관기, 2018). 이와 같은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체계



(출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홈페이지)

## 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평가

예술강사 평가는 2012년까지는 평가 결과 하위 10%를 2년 연속하면 강사 계약이 해지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때문에 강사들은 고용의 불안과 동시에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되었다. 2012년 이후에는 재심사 없이 컨설팅 평가제로 변화하였다. 이는 표준교육이 없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이와 같은 평가체제가 강사 역량강화에 방해가 되는 요소라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컨설팅 평가체제는 평가위원이 현장에 방문을 하여 수업을 참관하고 예술 강사와 기관의 담당자와 면담을 하여 기존의 '1:1강사 교육활동 현장방문 평가' 방식을 유지하되 하위 10%의 강사들의 계약해지 제도를 없앤 것이다. 따라서 2013년부터 예술 강사 평가의 목적은 강사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활동 역량강화에 두고 평가위원의 피드백을 통해 예술 강사의 수업내용, 목표, 방향 설정 등 강사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예술강사 평가의 구성원은 진흥원, 평가위원, 수혜자, 복지기관이다. 또한 예술강사도 평가위원과 복지기관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평가의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하고 평가의 결과에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이다(유지영, 2015).

<표 11>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평가체제 변천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각 분야 전문가	분야별 교육위원회 구성	강사의 평가위원 평가에 현장방문 성실도 항목 추가	2013년와 동일 진행
평가 방식	상대평가와 현장방문 평가	절대평가 및 현장방문 평가 후 피드백	현장방문평가와 컨설팅 평가제
수혜자 평가	전체 대상 전수 조사	대상별 맞춤형조사 및 노인분야 반영비율 확대	2013년와 동일 진행
평가 결과	다음해 강사 선	다음해 강사 선발에 미	2013년와 동일 진

	발에 반영	반영	행
현장 방문 평가	평가위원이 자 율적으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사 면담 : 15분</li> <li>- 수업 참관 : 50분</li> <li>- 강사 면담 ; 25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지사 면담: 15 분</li> <li>- 수 업 참 관 : 60~120분</li> <li>- 강사면담: 30~60 분</li> </ul>

(출처 유지영, 2015 예술강사 평가체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모색)

### Ⅲ.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연구주제에 대해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형화된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비슷한 유형의 두 가지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예술강사의 심층면접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과 알고 있는 점을 고찰해보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심층면접은 인터뷰 대상자의 정보 및 간단한 질문들을 선택형과 서술형을 섞어 작성된 질문지를 배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전화 및 1:1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윤지(2018)에 의하면 개별 심층면접(In -depth Interview)은 조사 대상자 한 사람을 대상을 특정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청취하는 조사 방법이며, 조사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자의 연구 내용에 맞는 전문지식을 가진 대상자를 선정한다. 조사방법으로는 장소를 정하여 직접 만나 인터뷰를 할 수도 있고 전화인터뷰 등을 통하여 진행이 가능하다. 면접원은 면접자가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질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생각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하여 사전 질문을 서면을 통해 전달하고 인터뷰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 풍부하고 다양한 의견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심층면접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 반 구조화된 인터뷰로 진행하였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는 정보원에게 질문할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편안한 상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인터뷰이다(심윤진, 2018).

또한 심층면접은 질문 가이드라인을 세우지만, 면접과정에서 얻은 정보 등을 토대로 다음 응답자에 대한 질문 내용을 융통성있게 변화 시킬 수 있으며 (Berger, 2001) 연구 참여자가 자유롭게 면담의 내용과 질서 등을 결정해 나가기도 한다(신옥순, 2005). 본 연구자는 연구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어보고자 심층 면접을 사용하였다.

##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실제적 교육을 하는 현장의 예술강사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한다.

연구문제 1. 협력수업은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문제 2. 평가의 피드백이 강사의 역량과 수업에 질 향상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연구문제 3.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강사들의 차이점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1에서는 교사와의 협력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에서 협력수업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연구문제 2에서는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과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평가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파악하고 피드백 형식의 평가가 수업과 강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 지를 고찰할 것이다. 연구문제 3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술강사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 2. 심층면접 참여자

심층면접 참여자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사회문화예술강사 12명과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학교문화예술 강사 2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들을 심층면접의 대상자로 선정한 이유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하였으므로 심도 있는 인터뷰를 진행하기 위하여 선정하였다.

<표 12> 연구 참여자의 배경(단위: 명, 백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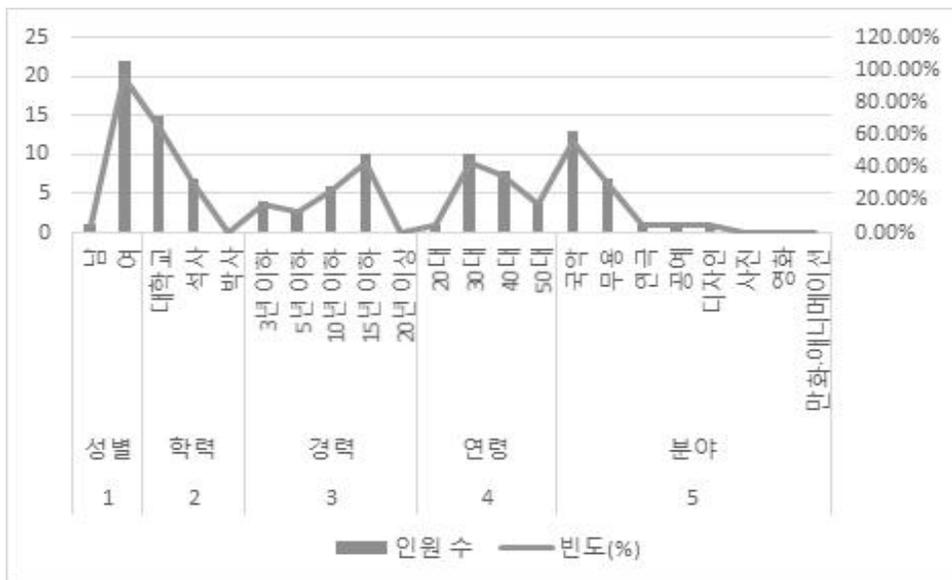
문항 번호	질의 내용	구분	내용	인원 수	빈도(%)
1	성별	학교	남	1	4.3 %
			여	22	95.6 %
2	학력		대학교	15	65.2 %
			석사	7	30.4 %
			박사	0	0 %
3	경력		3년 이하	4	17.3 %
			5년 이하	3	13 %
			10년 이하	6	26 %
			15년 이하	10	43.4 %
			20년 이상	0	0 %
4	연령		20대	1	4.3 %
			30대	10	43.4 %
			40대	8	34.7 %
			50대	4	17.3 %
5	분야		국악	13	56.5 %
			무용	7	30.4 %
			연극	1	4.3 %
			공예	1	4.3 %
			디자인	1	4.3 %
			사진	0	0 %
		영화	0	0 %	
		만화·애니메이션	0	0 %	
1	성별	사회	남	1	8.3 %
			여	11	91.6 %
2	학력		대학교	6	50 %

			석사	6	50 %
			박사	0	0 %
3	경력		3년 이하	1	8.3 %
			5년 이하	4	33.3 %
			10년 이하	4	33.3 %
			15년 이하	3	25 %
			20년 이상	0	0 %
4	연령		20대	0	0 %
			30대	5	41.6 %
			40대	5	41.6 %
			50대	2	16.6 %
5	분야		국악	8	66.6 %
			무용	2	16.6 %
			연극	1	8.3 %
			공예	1	8.3 %
			디자인	0	0 %
			사진	0	0 %
			영화	0	0 %
			만화·애니메이션	0	0 %
6	사업의 종류		학교문화예술교육	23	65.7 %
			사회문화예술교육	12	34.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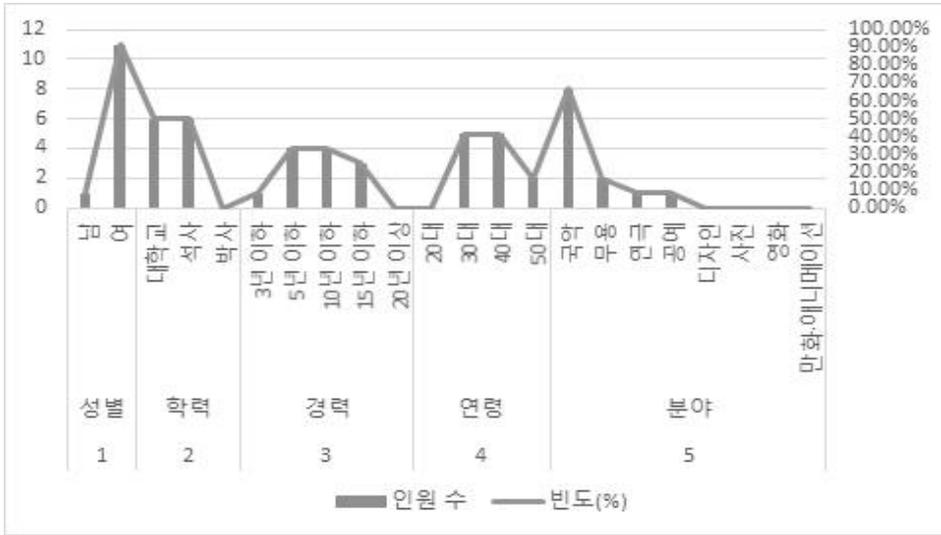
다음 <표 12>는 심층면접 참여자의 배경에 대한 결과이다. 심층면접자 총 35명 중 학교문화예술강사는 56.7 %, 사회문화예술강사는 34.3 %로 학교문화예술강사가 더 많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총 23명으로 남성이 4.3 %, 여성이 95.6 %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65.2 % 로 가장 높고, 경력은 15년 이하가 43.4 %로 가장 높으며, 분야는 국악이 56.5 %로 가장 높다.

사회문화예술강사는 총 12명으로 남성이 8.3 %, 여성이 91.6 %로 여성의 비율이 높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50 %, 석사가 50 %로 같으며, 경력은 5년 이하와 10년 이하가 33.3 %로 가장 높으며, 분야는 국악이 66.6 %로 가장 높았다.



[그림 2] 참여자 학교문화예술강사의 배경



[그림 3] 참여자 사회문화예술강사의 배경

### 3. 심층면접 질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예술강사 중 심층면접 대상자에게 1차적으로 질문지를 배포하여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4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참여자의 배경’ 영역에는 연령,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종사한 경력, 분야, 학력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두 번째, ‘수업 및 평가’ 영역에는 수업의 활동 및 자료수집의 방법, 주 수업 내용, 협력수업의 형태, 협력수업에 대한 인식과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업과 평가의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세 번째 ‘관계 및 제도’ 영역에는 학교 및 운영기관과의 이해관계, 애로사항 및 학교문화예술강사와 사회문화예술강사의 선발 제도와 학교 및 복지기관 배정 제도의 차이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있다. 네 번째 복지의 영역에는 배정받은 시수, 연봉 그리고 이 사업 이외에 하는 일, 교통수단 및 교통비,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

으로 이루어져있다. 이와 같이 질문지와 심층면접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3>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 강사 심층면접 질문지 구성 내용

분류	내용
참여자 배경	성별
	학력
	경력
	연령
	분야
	참여하는 사업
수업 & 평가	수업 자료 활용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주관의 문화예술교육연수 참여 경험
	협력수업진행 여부 및 방법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형태
	평가의 형태 및 견해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강사 평가의 차이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업에 대한 차이
협업 & 선발 배정	학교 및 복지기관과 협의사항
	강사 선발 및 배정 제도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강사 선발과 배정 제도의 차이
	학교 및 복지기관의 요구사항
	대상자의 요구사항
복지	배정받은 시수 및 급여
	교통수단 및 교통비

	복지에 대한 생각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이외의 종사하는 일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바라는 점

#### 4. 자료 처리

본 설문자료의 처리는 엑셀 프로그램은 이용하여 통계분석 방법인 빈도 분석과 그래프 분석을 비교하고 설명하였다. 빈도분석은 측정한 데이터의 빈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한 통계를 기초로 특정 변화의 정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심층면접 자료의 처리는 대상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한 후 키워드 위주로 분류하였다.

#### 5.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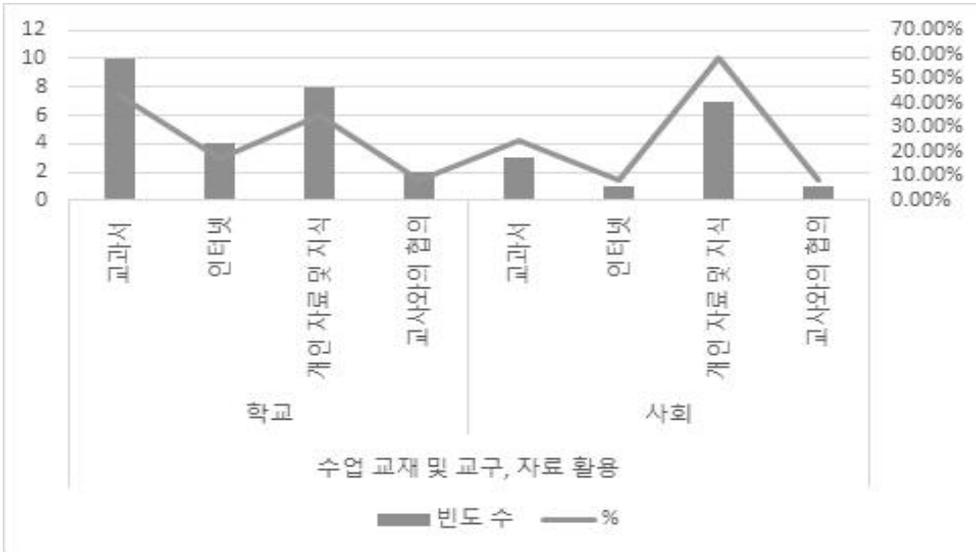
본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실태 및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현직의 학교 및 사회 예술강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문제에 따라 크게 수업 및 협력수업의 형태, 강사 선발과 배정 시스템, 근무환경 및 복지로 나누었으며, 주요 키워드로 구분한 빈도 및 백분율과 그에 따른 연구 참여자의 진술에 따라 같은 맥락의 의견들을 모아 구성하였다. 그리고 분석을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교육 현장과 예술강사들의 접근성은 어떤지 살펴보았다.

## 1) 수업 및 평가

<표 14> 심층면접 참여자 수업자료 활용(중복가능)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수업 교재 및 교구, 자료 활용	학교	교과서	10	43.4 %
		인터넷	4	17.3 %
		개인 자료 및 지식	8	34.7 %
		교사와의 협의	2	8.6 %
	사회	교과서	3	25 %
		인터넷	1	8.3 %
		개인 자료 및 지식	7	58.3 %
		교사와의 협의	1	8.3 %

위의 <표 14>는 참여자들의 수업자료 및 활동 내용을 어디에서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교과서를 수업의 교재 및 자료로 활용한다는 의견이 43.4 %로 가장 높으며, 사회문화예술강사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 및 지식을 활용한다는 의견이 58.3 %로 가장 높다.



[그림 4] 심층면접 참여자 수업자료 활용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참여자 중 학교문화예술강사 C와 사회문화예술강사 f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C : 기본교과 수업이기 때문에 보통은 교과서를 기반으로 하여 수업을 하죠. 근데 교과서로만은 한계가 있어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기유발과 같은 것을 위해 동영상을 보여줘요. 그때는 유튜브를 자주 이용해요. 전래 동요나 동화 이야기 같은 영상이 다양해서 자주 이용해요. 그래도 제재곡이나 주요 활동은 교과서를 활용하죠.

사회문화예술강사 f : 사회문화예술교육 특성상 학교처럼 정해진 교육과정이 명확하게 없어요. 그래서 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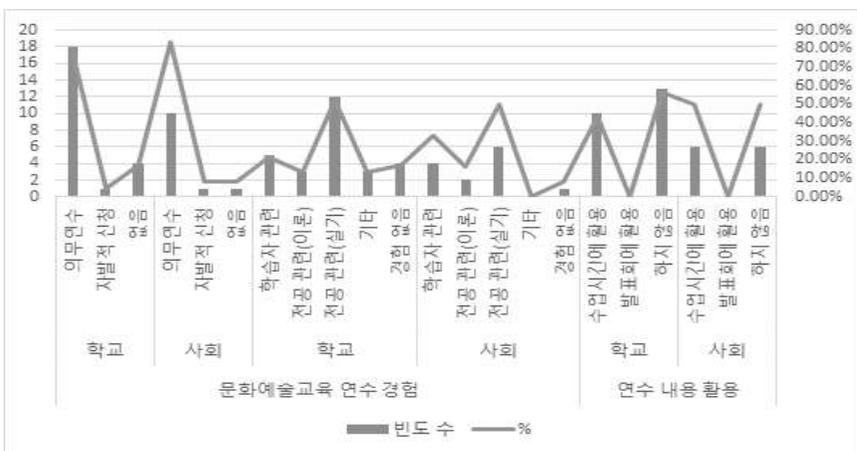
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활용해요. 제  
 가 이제까지 무용을 하면서 배운 지식과 경  
 험한 프로그램을 주로 해요. 또 연수나 다  
 른 강사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기도 해요.

<표 15>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연수 경험 및 활용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문화예술교육 연수 경험	학교	의무연수	18	78.2 %
		자발적 신청	1	4.3 %
		없음	4	17.3 %
	사회	의무연수	10	83.3 %
		자발적 신청	1	8.3 %
		없음	1	8.3 %
	학교	학습자 관련	5	21.7 %
		전공 관련(이론)	3	13 %
		전공 관련(실기)	12	52.1 %
		기타	3	13 %
		경험 없음	4	17.3 %
	사회	학습자 관련	4	33.3 %
		전공 관련(이론)	2	16.6 %
		전공 관련(실기)	6	50 %
		기타	0	0 %
경험 없음		1	8.3 %	
연수 내용 활용	학교	수업시간에 활용	10	43.4 %
		발표회에 활용	0	0 %
		하지 않음	13	56.5 %

	사회	수업시간에 활용	6	50 %
		발표회에 활용	0	0 %
		하지 않음	6	50 %

위의 <표 15>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연수의 경험과 그 연수의 활용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연수를 의무연수로 접하였다는 의견이 78.2%로 가장 높고, 전공과 관련된 실기 연수가 52.1%로 가장 높으며, 연수 받은 내용을 실제 교육활동 중 활용에 대한 질문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56.5%로 가장 높았다. 사회문화예술강사도 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교육연수를 의무연수로 접하였다는 의견이 83.3%로 가장 높고, 전공에 관련된 실기 연수가 50%로 가장 높으며, 연수의 내용을 교육활동 중 활용에 대한 질문을 수업시간에 활용하였다는 의견과 활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50%로 같다. 기타의견으로는 학교문화예술강사의 경우 수업계획서 작성법에 관한 연수, 문화예술향유에 관한 연수, 교육학 및 심리 상담에 관한 연수의 경험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림 5]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연수 경험 및 활용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학교문화예술강사 M, 사회문화예술강사 d, 학교문화예술강사 I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M : 사회문화예술 강사는 학교예술 강사와 달리 매년 연수가 의무예요. 매 년 다양하게 진행하는데 기억에 남는 것은 문화예술 향유와 관련된 연수였어요. 제가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강사이지만 주로 무용이나 표현에 대한 활동을 많이 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었어요. 이 연수 이후에 문화예술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수업을 할 때도 좀 더 진지해진 것 같아요.

사회문화예술강사 d : 신규 강사 때의 첫 의무연수만 받아보고 의무가 아닌 이후로는 받지 않았어요... (중략) 아마 첫 연수에 그다지 도움을 못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잘은 기억나지 않지만 실제 수업과는 좀 동 떨어진 연수였던 걸로 기억해요.

학교문화예술강사 I : 의무연수가 없어진 이후에는 제가 진흥원에 신청을 하여 연수를 받았어요. 의무연수 때는 모든 분야의 강사들이 다 같이 받는 거라 그런지 실제 수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신청해서 받는 프로그램

램은 생각보다 다양하고 재밌는 연수가 많아서 좋았어요. 기억에 남은 연수는 동양미술 관련 연수였는데 동양미술 속에 국악의 악기와 연주 모습, 연주 형태 등이 다양하게 묘사되어있는 것에 대한 수업이었어요...(중략) 수업을 할 때 특히 중·고등학교의 수업을 할 때 좀 더 깊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어요.

위의 <표 15>와 예술강사 d와 I의 인터뷰에 의하면 의무연수가 없어진 이후에는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연수를 받거나, 강사 초임에 의무연수 이후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 연수 프로그램은 주로 자신의 전공 관련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사회문화예술강사의 교육프로그램의 형태

대상자	내용
	선생님께서 복지기관에서 한 문화예술교육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a	노인 복지관에서 수궁가 판소리를 배우고 한 장면을 창극을 표현하는 활동
b	아동 복지기관에서 음악 만들기와 음악을 몸으로 표현하기 활동
c	아동 복지기관에서 국악기 연주하기 활동
d	장애인 국악 놀이, 사물놀이, 난타, 민요배우기
e	실생활의 재료를 이용한 만들기 활동
f	두드림으로 마음을 두드림 사물놀이 활동

<b>g</b>	청각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니, 내 이야기’
<b>h</b>	‘바다 속 그리기’
<b>i</b>	아동 사물놀이, 난타 활동
<b>j</b>	아동 복지기관에서 음악 만들기와 음악 연주하기 활동
<b>k</b>	노인 복지기관에서 난타 활동
<b>l</b>	노인복지기관에서 ‘마음나눔 몸세움’ 고민, 걱정을 나누고 몸으로 표현하기 활동

위의 표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참여자들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참여자 a : 노인복지관에서 판소리 5마당 중 수궁가의 대목을 배우고 각자 역할을 맡아 창극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해요. 판소리를 배우고 연기를 하는 것 뿐 아니라, 필요한 소품이나 배경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직접 만들어 무대를 꾸미는 것까지 해요. 음악과 연극과 미술을 융합하여 수업을 하죠. 어르신들이 힘들어 하실 때도 있지만 연말에 무대에서 서면 자신감도 생기시고 많은 보람을 느끼세요. 그러면 저도 엄청 뿌듯하고 보람은 많이 느끼죠.*

*참여자 b : 아동복지관에서 주변의 악기들로 음악 만들기 활동을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음악을 몸짓을 이용해 표현하는 활동을 해요. 기관마다 갖고 있는 악기들이 다 달라서 기관마다 생각보다 다양한 음악이 만들어져요. 악기는 국악기나 서양악기도 상관없이 아이들이 원하는 악기로 사용해요. 아이들은*

타악기나 선을 타악기 위주로 선택하긴 하죠.

참여자 c : 아동복지관에서 국악기 연주활동을 해요. 주로 제 전공인 해금을 살려서 해금을 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물놀이나 단소, 소금의 연주 수업을 해요.

참여자 d : 장애인복지관에서 국악 놀이 수업을 진행해요. 주 활동은 사물놀이, 난타와 같은 활동을 해요. 난타 같은 경우는 간단한 리듬을 연습해서 요즘 음악에 맞춰 연주해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직접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하기도 하고요.

참여자 e : 아동복지관에서 주변의 생활 속 물건들이나, 쓰레기 같은 것들을 활용하여 만들기 활동을 해요. 아이들에서 익숙한 물건들이 새로운 모습을 탈바꿈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참여자 f :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 이름은 '두드림으로 마음을 두드림'이라는 활동으로 주로 사물악기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장단을 배우고, 다양한 장단을 자유롭게 재조합하여 연주하는 활동이에요.

참여자 g : 장애인복지관에서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이름은 '보이니? 내 이야기가'이에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여 몇 가지

의 스토리를 선정하여 모둠별로 그 이야기를 몸으로 표현하는 활동을 해요 보통 2가지를 선정하여 저와 함께 만들어가요. 말을 하지 않아도 몸으로도 이야기를 전달 할 수 있는 것을 느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여자 h : 아동복지관에서 ‘바다 속 그리기’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닷 속의 다양한 생물을 알아보고 투명지에 다양한 색으로 바닷 속의 생물들을 그림 그려 그 밑에 검정 종이를 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거기에 손전등 모양을 흰 종이를 사이에 끼우면 그 부분만 그림이 보이게 됩니다 마치 손전등을 비추면 보이게 되는 것 처럼요. 이러한 활동들을 해요.

참여자 i : 아동복지관에서 제가 아이들에게 맞게 쉬운 가락으로 이루어진 사물놀이 활동을 해요.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난타 활동을 하기도 해요.

참여자 j : 아동복지관에서 탬버린, 실로폰, 멜로디언, 트라이앵글, 장구, 북 등의 다양한 악기를 활용하여 음악 만들기를 하고 그 음악을 같이 합주해보는 활동을 해요.

참여자 k : 노인복지관에서 난타활동을 주로해요. 민요에 맞춰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트로트에 맞춰서 동작과 함께 난타연주를 해요.

확실히 좋아하는 음악에 맞춰하니깐 더 즐거워하  
 시고 적극적으로 되더라고요.

참여자 1 : 노인복지관에서 ‘마음나눔 몸세움’이라는 프로그  
 램을 진행해요. 주 활동은 요즘의 고민이나 또는  
 일상적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와 함께 다  
 양한 몸동작을 해요. 스트레칭으로 시작해서 간단  
 한 운동으로 발전해 나아가요. 몸이 풀리면서 이  
 야기도 더 다양해지고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의 스  
 트레스 해소와 다른 이의 이야기에 공감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사회문화예술교육은 학교문화예술교육과 달리 명확한 교육과정 없이 예술  
 강사의 연간 계획서에 의하여 교육계획이 선정된다. 따라서 사회문화예술강  
 사들의 자신들의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사회문  
 화예술강사 f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사회문화예술강사 f : 사회예술 강사는 학교예술 강사와 달리  
 교육시작 전에 교육 연간계획서를 제출해요  
 올해 배정받은 기관에 이러한 교육활동을 하  
 겠다. 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여름  
 쬐에 중간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연말  
 에 보고서를 또 작성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  
 계획서로 복지관의 담당선생님과 수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회 예술 강사  
 들은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어야 해요 매년 같은 것을 할 수는 없으니

까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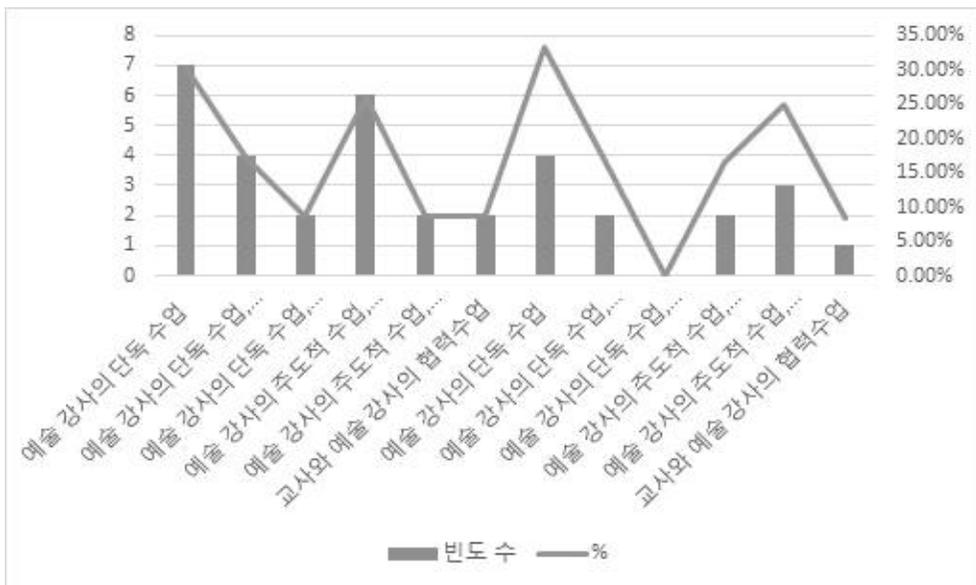
위의 <표 16>는 참여자들 중 사회문화예술강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문화예술강사 참여자 전원인 실기교육을 위주로 교육한다고 답하였다.

<표 17> 심층면접 참여자의 협력 수업의 형태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협력수업의 형태	학교	예술 강사의 단독 수업	7	30.4 %
		예술 강사의 단독 수업, 교사는 참관	4	17.3 %
		예술 강사의 단독 수업, 교사는 학생인솔	2	8.6 %
		예술 강사의 주도적 수업, 교사는 학생지도	6	26 %
		예술 강사의 주도적 수업, 교사는 필요시 협력	2	8.6 %
		교사와 예술 강사의 협력수업	2	8.6 %
	사회	예술 강사의 단독 수업	4	33.3 %
		예술 강사의 단독 수업, 교사는 참관	2	16.6 %
		예술 강사의 단독 수업, 교사는 학생인솔	0	0 %
		예술 강사의 주도적 수업, 교사는 학생지도	2	16.6 %
		예술 강사의 주도적 수업, 교사는 필요시 협력	3	25 %
		교사와 예술 강사의 협력수업	1	8.3 %

위의 <표 17>는 참여자의 협력수업 진행 형태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예술강사의 단독 수업을 한다는 의견이 30.4 %로 가장 높다. 사회문화예술강사도 예술강사의 단독 수업으로 진행한다는 의견이

33.3 %로 가장 높다. 응답 중 예술 강사의 요청으로 필요시에 협력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는 학교 예술 강사는 혼자서는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활동의 경우에 교사에게 협력을 요청한다고 답하였다. 또, 사회문화예술강사는 특별 지도가 필요한 특수아동이 있을 경우와 실기위주의 활동의 경우 단독수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요청한다고 답하였다.



[그림 6] 심층면접 참여자의 협력 수업의 형태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학교문화예술강사 A와 사회문화예술강사 i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A : 답임 선생님들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교실로 인솔한 후 수업 시작 인사를 하고 다시 되돌아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끔 어떤 선생님들은 학기 초에 저에게 어떤 것이 편하시냐

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선생님 편하신대로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그럼 초반에 참관하시다가 갈수록 오시지 않아요.

*사회문화예술강사 i* :보통 학기 초에 앞으로 이러한 수업을 하겠다는 수업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제가 이러한 것들 위주로 수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면 원하시는 수업이 있다면 이야기 해주시기도 하고 없으면 안하시기도 하죠. 이미 수업 계획서를 받아서 대강 어떤 수업을 할 거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만 변동이 있거나 다시 한 번 말하는 식으로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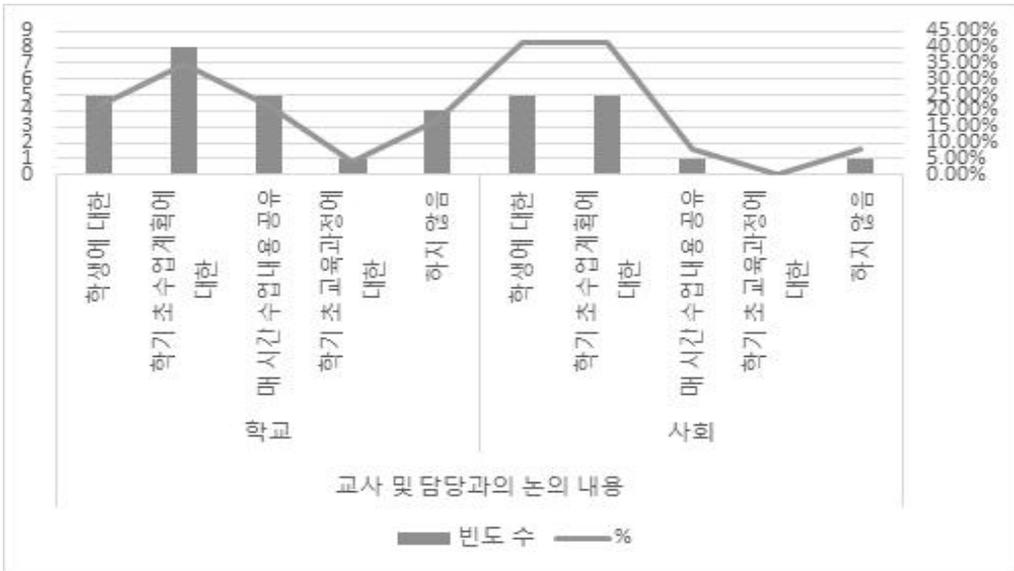
위의 <표 17>과 심층면접의 결과에 의하면 수업은 예술강사가 진행하고 교사는 학생인솔 또는 참관을 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학기 초의 교육내용을 조정하는 정도의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였다.

<표 18> 협력수업을 위해 교사 및 담당자와 논의하는 내용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교사 및 담당과의 논의 내용	학교	학생에 대한	5	21.7 %
		학기 초 수업계획에 대한	8	34.7 %
		매 시간 수업내용 공유	5	21.7 %
		학기 초 교육과정에 대한	1	4.3 %
		하지 않음	4	17.3 %
	사회	학생에 대한	5	41.6 %

	학기 초 수업계획에 대한	5	41.6 %
	매 시간 수업내용 공유	1	8.3 %
	학기 초 교육과정에 대한	0	0 %
	하지 않음	1	8.3 %

위의 <표 18>는 협력수업을 위해 예술강사와 담당 및 교사와 논의하는 내용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학기 초에 수업계획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의견이 34.7 %로 가장 높으며, 사회문화예술강사는 학생에 대한 논의와 수업 계획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의견이 41.6 %로 가장 높다.



[그림 7] 협력수업을 위해 교사 및 담당자와 논의하는 내용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학교문화예술강사 U와 사회문화예술강사 c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U : 학기 초에나 중간에 학생의 특성이나  
 유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특별하  
 게 생각해야할 학생이 있거나, 특별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대부분  
 제일 까불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사회문화예술강사 c : 수업시작 전에 교사에게 오늘 수업의 주  
 요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진행  
 합니다. 협력수업을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하  
 기 위해서 합니다.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학  
 기 초에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본 연구자가 심층면접 참여자 K와 참여자 1에게 학교문화예술교육  
 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업 전반의 차이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다.

연구자 : 수업을 진행할 때 전반적으로 학교와 사회문화예술  
 교육에서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참여자 K : 가장 큰 차이는 학습자들의 분위기예요. 학교는  
 교육과정 안에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가 저와의 국악 수업을 다른 교과수업과 똑같  
 이 생각해요. 그래서 수업 분위기가 대체로 잘 잡  
 혀있어 수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아동복지관의  
 경우 좀 더 자유로워요. 이걸 왜 해야하냐고 묻는  
 친구들도 있어요. 좀 당황스러웠죠. 그럴 땐 담당  
 선생님이 도와주시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분위기  
 가 자유로워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어요.

참여자 1 : 현장학습비와 교구지원비가 가장 달랐어요. 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에 관하여 어떠한 지원도 없어요. 그런데 사회(문화예술교육)는 일 년에 한 번 현장 학습도 갈 수 있고 금액은 크지 않지만 교구지원비, 연구비 명목으로 지원금이 나와요. 무용의 경우는 다양한 소품이 필요한데 이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죠.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수업 전반의 차이에 대해 참여자 K는 학습자의 태도와 수업의 분위기라고 이야기 하였으며, 참여자 1는 교구 지원비와 현장학습비의 지원이라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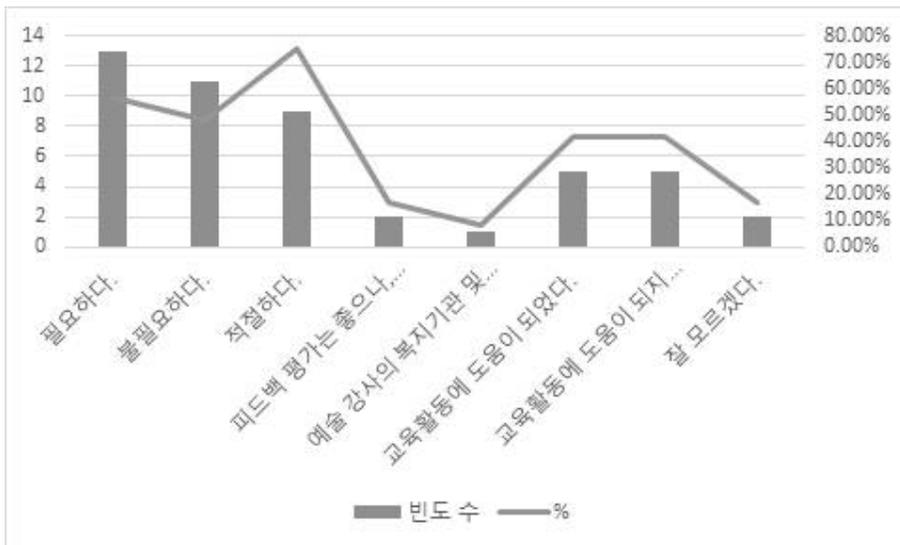
<표 19> 심층면접 참여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평가 제도의 필요성	학교	필요하다.	13	56.5 %
		불필요하다.	11	47.8 %
평가에 대한 의견	사회	적절하다.	9	75 %
		피드백 평가는 좋으나, 보고서 평가는 많다.	2	16.6 %
		예술 강사의 복지기관 및 학습자 평가 강화	1	8.3 %
피드백의 활용	사회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었다.	5	41.6 %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41.6 %
		잘 모르겠다.	2	16.6 %

위의 <표 19>는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강사의 평가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의 경우, 현재 평가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필요성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사회문화예술강사는 현재 피드

백 평가와 보고서 평가, 복지기관의 담당의 평가, 학습자의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적절성에 대한 질문과 피드백 평가가 수업에 활용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로는 다음과 같다.

학교문화예술강사의 평가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56.5 %로 가장 높다. 사회문화예술강사의 평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적절하다는 의견이 75 %로 가장 높으며, 피드백 평가가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41.6 %로 가장 높다.



[그림 8] 심층면접 참여자의 평가제도에 대한 의견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참여자 중 학교문화예술 강사 H와 학교문화예술 강사 W, 사회문화예술강사 b, 사회문화예술강사 d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H : 그 동안 예술 강사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평가를 받아봤는데 그렇게 수업에 큰 도

음을 받지 못했어요. 예전 학습자의 평가와 학교의 평가가 시수배정에 영향이 있었을 때는 개인 사비를 들여서 점수를 잘 받고자 하기도 했었고...(중략) 평가는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학교문화예술강사 W : 전남은 진흥원에서 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도 운영기관에서 모니터링이라는 피드백 형식의 평가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받은 피드백이 저의 수업에 자신감이 생기고 도움이 많이 되었는데 그마저도 올해는 없어서 아쉬웠어요. 물론 솔직히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수업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문화예술강사 d : 좋다고 생각해요. 한쪽의 입장만이 아닌 복지기관과 학습자가 강사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강사도 기관과 학습자를 평가하는 것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피드백도 물론 어떤 장학사가 오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저는 대부분 좋았어요. 맨날 저 혼자 수업하다가 피드백을 받고 자신감도 생기고...(중략)

사회문화예술강사 b : 피드백 형식의 평가는 좋다고 생각하는 데 학기 초의 계획서, 중간보고서, 연말평가서 등 자주 제출하는 것이 좀 번거로워요. 물론 보고서 제출에 제 평가와 학습자의 기

관의 평가도 있지만 제 수업에 대한 평가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두 번만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본 연구자가 심층면접 참여자 I와 참여자 K에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평가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연구자 : 평가 방식에 대한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참여자 I : 학교는 2016년도 이후에는 평가가 사라졌어요. 어떤 지역의 어떤 분야는 평가를 한다고 하던데 그것도 기존과 다르게 피드백 형식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학교에서는 옛날에 다음해에 시수 배정에 영향이 있던 시절에 평가만 받아보고 이후에는 없었어요. 사회는 현장 평가, 서면 평가로 나뉘지는데 현장평가는 1년, 3년, 5년, 7년차의 강사들이 해당이 되요. 물론 평가 보다는 피드백의 형식이죠. 서면으로는 기관의 담당자 평가, 학습자평가, 강사평가로 진행이 되요.

참여자 K : 사회의 경우, 피드백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나머지 보고서나 계획서의 평가는 연말에 그래프로 점수로 나와요. 모든 평가의 총 합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는데 결과가 좋을 경우에는 그 해가 뿌듯하고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 지금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학

교의 경우에는 전남에 국악은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는데 장학사들도 진지하게 피드백해주는 분들도 있고 그냥 왔다 가시는 분들도 계셔서 더 발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의 <표19>와 심층면접에 의하면 학교예술교육의 경우 현재는 평가는 진행되지 않으며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운영기관, 예술강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여 피드백형식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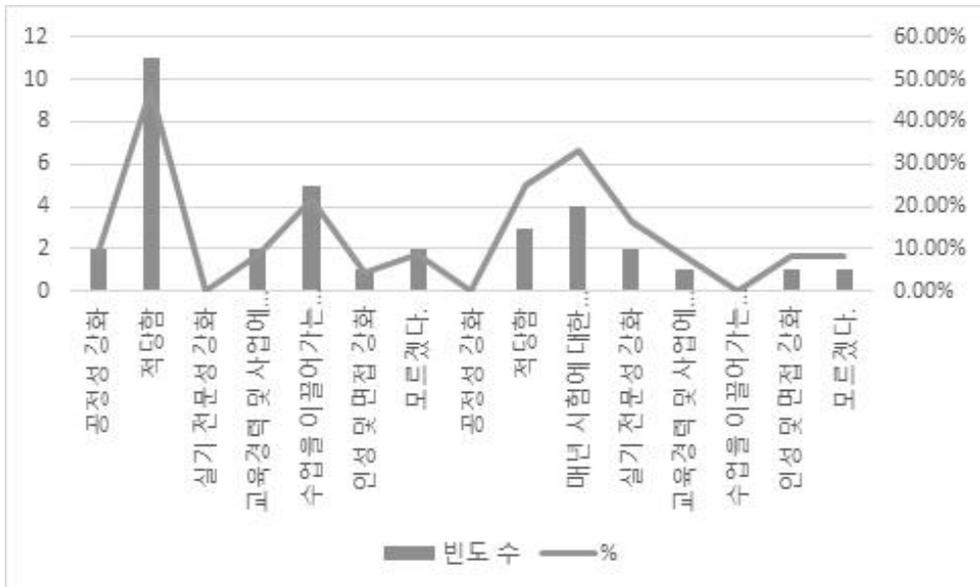
## 2) 관계 및 제도

<표 20> 심층면접 참여자의 강사선발에 대한 의견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강사선발에 대한 생각	학교	공정성 강화	2	8.6 %
		적당함	11	47.8 %
		실기 전문성 강화	0	0 %
		교육경력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강화	2	8.6 %
		수업을 이끌어가는 힘 강화	5	21.7 %
		인성 및 면접 강화	1	4.3 %
		모르겠다.	2	8.6 %
	사회	공정성 강화	0	0 %
		적당함	3	25 %
		매년 시험에 대한 부정적 의견	4	33.3 %

		실기 전문성 강화	2 16.6 %
		교육경력 및 사업에 대한 이해도 강화	1 8.3 %
		수업을 이끌어가는 힘 강화	0 0 %
		인성 및 면접 강화	1 8.3 %
		모르겠다.	1 8.3 %

위의 <표 20>는 참여자들의 강사선발 방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적당하다는 의견이 47.8 %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21.7 %로 높았다. 사회문화예술강사는 경력의 인정 없이 매년 신규와 같이 시험을 봐야 한다는 부담감과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33.3 %로 가장 높았다.



[그림 9] 심층면접 참여자의 강사선발에 대한 의견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학교예술강사 D와 사회예술강사 a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D : 실기 평가에 너무 치우쳐 있는 느낌이 든다. 국악의 경우, 실기평가를 단소, 사물장구, 장구장단을 연주하며 5도 민요 부르기를 해요. 하지만 면접은 수업과 이론에 관한 질문 2~3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물론 실제 수업에는 실기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하긴 하지만 한 시간의 수업을 끌어나가는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 철학, 교육경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문화예술강사 a : 평가의 중요정도가 심층 면접에 집중되어있어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수업에 관한 심층면접은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또, 수업 계획서나 수업 자료에 대한 평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실기 평가는 거의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다 한번 모의 수업을 하기도 한다던데 저는 없었어요. 실제로 수업을 하면 주로 실기가 많기 때문에 실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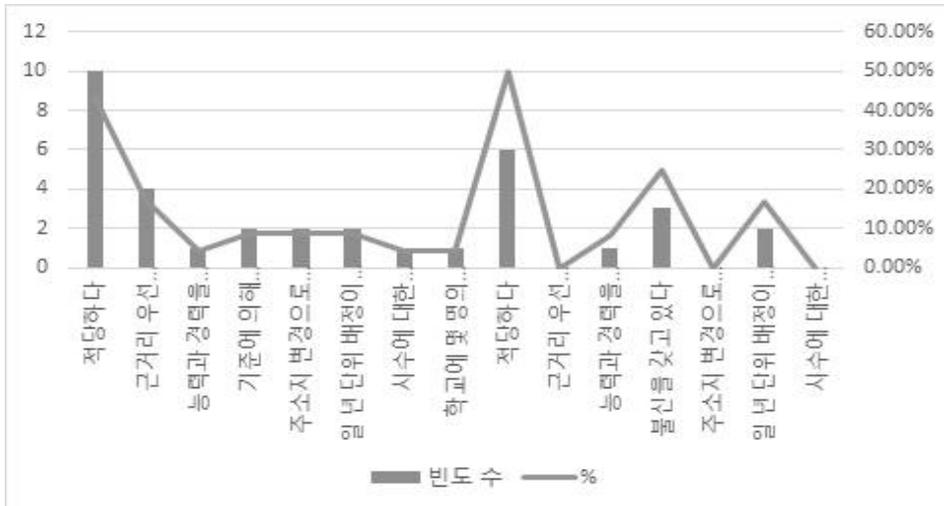
위의 <표 20>과 심층면접에 의하면 강사의 선발 평가가 학교문화예술강사의 경우 실기과제와 수업실현 등의 실기위주의 평가로 이루어져있으며, 사회문화예술강사는 심층면접의 질의응답 위주의 면접위주의 평가로 이루어져있다고 답하였다.

<표 21> 학교 및 복지기관의 배정 방식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학교 및 기관 배정 시스템	학교	적당하다	10	43.4 %
		근거리 우선 기준으로만은 부적절하다	4	17.3 %
		능력과 경력을 인정해야한다	1	4.3 %
		기준에 의해 정확하게 배정되는지에 불신	2	8.6 %
		주소지 변경으로 피해가 있다.	2	8.6 %
		일 년 단위 배정이 부적절하다	2	8.6 %
		시수에 대한 비부차가 있다.	1	4.3 %
		학교에 몇 명의 강사가 희망하는지 확인 가능	1	4.3 %
	사회	적당하다	6	50 %
		근거리 우선 기준으로만은 부적절하다	0	0 %
		능력과 경력을 인정해야한다	1	8.3 %
		불신을 갖고 있다	3	25 %
		주소지 변경으로 피해가 있다.	0	0 %
		일 년 단위 배정이 부적절하다	2	16.6 %
시수에 대한 빈부차가 있다.	0	0 %		

위의 <표 21>는 학교 및 복지기관과 예술강사의 배정 방식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학교에 배정되는 방식이 적절하

다는 긍정의 의견이 43.4 %로 가장 높으며, 사회문화예술강사도 복지기관에  
배정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50 %로 가장 높다.



[그림 10] 학교 및 복지기관의 배정 방식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학교문화예술 강사 H와 학교문화예술강사 I, 사회  
문화예술강사 c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H : 근거리 우선으로 하는 방식은 좋으나,  
실주소지와 등본상의 주소지가 다른 강사  
들이 있어 가끔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요. 저는 목포에 살면서 전남 예술 강사로  
활동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광주에 살  
면서 등본 주소를 목포로 해놓은 강사들이  
있어 목포의 학교 배정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광주에서 목포로 수  
업을 가시더라고요...(중략) 그래서 실주소

지와 등본상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 작업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학교문화예술강사 I : 보통 시수가 큰 학교가 경쟁률이 높아요. 그런데 그런 시수가 큰 학교는 보통 학생 수도 학교 규모도 큰 학교가 많죠. 그래서 학교를 배정할 때 능력하고 경력을 고려해서 배정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지금도 연차가 고려되기는 하지만 그 비율이 낮아요. 물론 근거리 위주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경력과 능력이 인정됐으면 좋겠죠.

사회문화예술강사 C :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재배치가 먼저 결정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근거리 위주 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강사 평가의 점수가 배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는데, 그때에 비하면 아주 좋아졌죠. 물론 다른 기준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근거리가 공정한 것 같아요.

다음은 본 연구자가 참여자 S와 참여자 I, 참여자 K에게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강사 선발과 배정 제도의 차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다.

연구자 : 강사 선발과 배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참여자 S : 사회문화예술 강사의 경우에는 기존/신규의 개념이 거의 없어요. 매년 시험을 새롭게 봐요. 1차 서류부터 면접까지 처음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신규 의무연수도 매년 해야 하죠. 솔직히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시험에 경력이 인정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교는 처음만 시험보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선발이 되는 시스템이라 편하기는 하죠. 아마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참여자 I : 서류 심사가 더 까다로워요. 사회는 복지기관에 따라 다르게 시험을 봐요. 아동은 아동전형이, 노인은 노인전형이, 장애인은 장애인전형이 따로 있어요. 그에 따라 면접에서 학습자의 특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해요. 학교는 실기위주의 평가가 더 많은데 사회는 면접위주의 평가가 더 많아요. 그리고 복지기관 배정은 매년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의 구분이 학교에 비해 자유로워요. 광주지역이어도 전남으로 가기도 해요.

참여자 K : 학교는 재배치 이후에 동시에 모든 강사들이 직접 희망학교를 신청하고 배정 기준에 따라 선정되는데 기관은 1차적으로 진흥원에서 2군데를 지정해 줘요. 거기서 수동적으로 배정을 하면 제가 하겠다, 안하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는 학교와 비슷해요 홈페이지에 2차, 3차 기관이이 뜨면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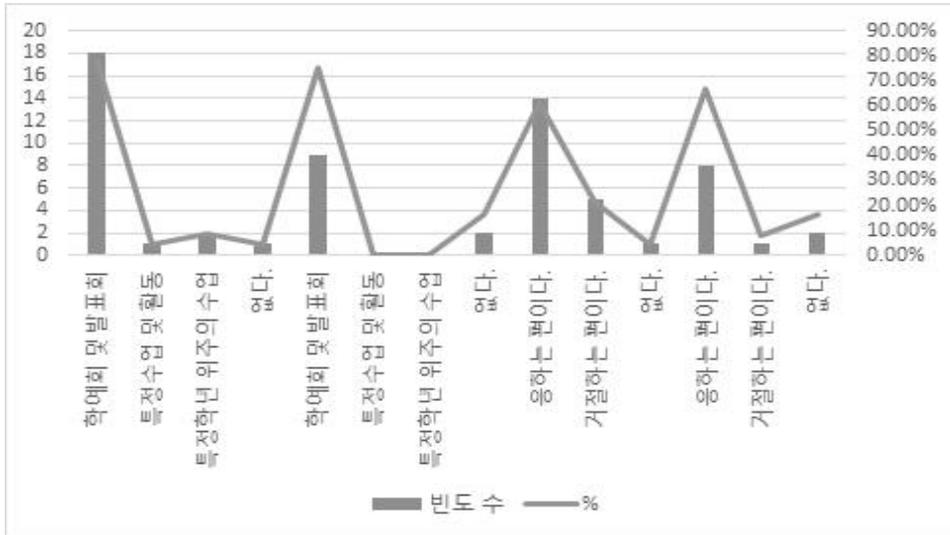
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진흥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기관을 배정해주는지에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표 22> 학교 및 복지기관에서 예술강사에게 요청사항(중복가능)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복지기관 및 학교가 강사에게 요구사항	학교	학예회 및 발표회	18	78.2 %
		특정수업 및 활동	1	4.3 %
		특정학년 위주의 수업	2	8.6 %
		없다.	1	4.3 %
	사회	학예회 및 발표회	9	75 %
		특정수업 및 활동	0	0 %
		특정학년 위주의 수업	0	0 %
		없다.	2	16.6 %
요구사항에 대한 대처	학교	응하는 편이다.	14	60.8 %
		거절하는 편이다.	5	21.7 %
		없다.	1	4.3 %
	사회	응하는 편이다.	8	66.6 %
		거절하는 편이다.	1	8.3 %
		없다.	2	16.6 %

위의 <표 22>는 학교 및 복지기관에서 예술 강사에게 원하는 요구사항들에 대한 질문의 답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학예회 및 발표회에 대한 요청이 많다는 의견이 78.2 %로 가장 높으며, 이러한 요청에 대해 응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60.8 %로 가장 높다. 사회문화예술강사도 학예회 및 발표회에

대한 요청이 가장 많다는 의견이 75 %로 가장 높으며, 이 요청에 대해 응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66.5 %로 가장 높다.



[그림 11] 학교 및 복지기관에서 예술강사에게 요청사항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참여자 중 학교문화예술강사 D와 사회문화예술강사 d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D : 학교에서는 거의 학예회를 많이 원하세요. 그래서 실기위주의 수업을 해주길 원하시죠. 그런데 가끔은 1학기 때까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2학기 중반 정도 되었을 때 발표회를 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획한 수업에 차질이 생겨서 난감한 경우가 있어요. 발표회는 저희에게 은근 부담이죠. 그래도 작품을 만들어서 무대를 세워야하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정중히 거절을 하는 편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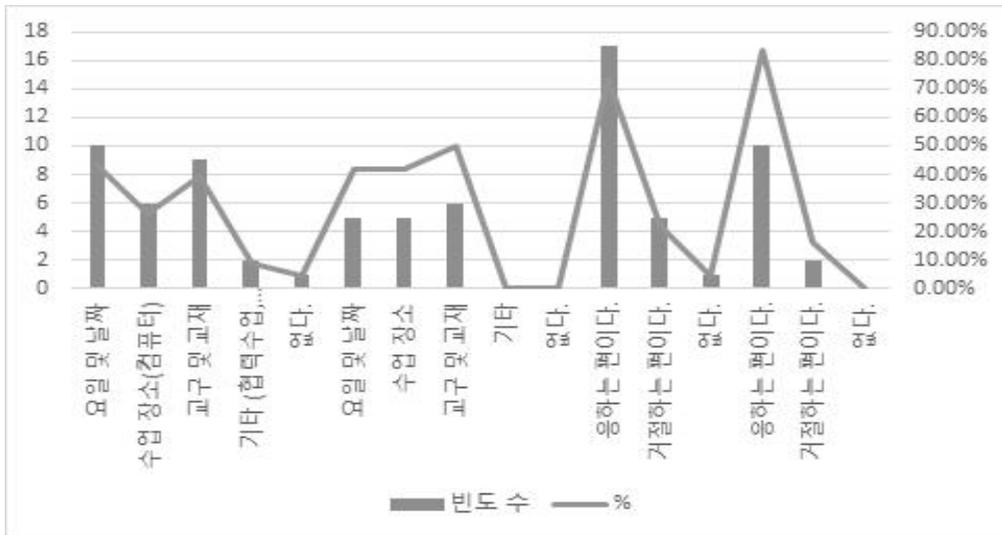
사회문화예술강사 d : 복지기관의 경우에는 발표회는 불가피한 것 같아요. 기관에서도 결과물이 필요한 것은 알지만, 수업에 방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공연위주의 발표회를 원하시니깐 수업의 거의 절반은 발표회를 준비하는데 사용하게 되요.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예술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과 중심의 인식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표 23> 예술강사가 학교 및 복지기관에 요청사항(중복가능)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수	%
참여자가 학교 및 복지기관에 요구사항	학교	요일 및 날짜	10	43.4 %
		수업 장소(컴퓨터)	6	26 %
		교구 및 교재	9	39.1 %
		기타 (협력수업, 교육내용)	2	8.6 %
		없다.	1	4.3 %
	사회	요일 및 날짜	5	41.6 %
		수업 장소	5	41.6 %
		교구 및 교재	6	50 %
		기타	0	0 %
		없다.	0	0 %
요구사항에	학	응하는 편이다.	17	73.9 %

대한 대처	교	거절하는 편이다.	5	21.7 %
		없다.	1	4.3 %
	사 회	응하는 편이다.	10	83.3 %
		거절하는 편이다.	2	16.6 %
		없다.	0	0 %

위의 <표 23>는 예술강사가 학교 및 복지기관에게 원하는 요구사항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요일 및 날짜 변경에 대한 요청을 한다는 의견이 43.4 %로 가장 높으며, 요청에 대해 학교는 응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73.9%로 가장 높다. 사회문화예술강사는 요일 및 날짜 변경에 대한 요청과 수업 장소에 대한 요청을 많이 한다는 의견이 41.6 %로 가장 높으며, 요청에 대하여 기관에서 응하는 편이라는 의견이 83.3 %로 가장 높다.



[그림 12] 예술강사가 학교 및 복지기관에게 요청사항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참여자 중 사회문화예술강사 e와 학교문화예술강

사 J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사회문화예술 강사 e : 보통 수업 장소와 교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악기는 어떤 것이 구비되어있는지, 어떤 것들을 구비 해주 실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컴퓨터와 스피커가 있는 장소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부분은 최대한 맞춰주시려고 하시죠. 그런데 교구 구매 같은 학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대부분 어렵다고 해요.

학교문화예술 강사 J :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방문 기간에 학교에 방문하여 요일과 시간과 시작하는 날짜를 정해요. 그러다 제가 불가피하게 수업을 못할 경우에는 미리연락을 드려서 보강날짜를 잡곤 해요. 학교에서는 흔쾌히 변경해주세요. 또 학교의 행사로 인해 못할 경우에도 보강날짜를 협의해요. 제가 이제까지 출강했던 학교들은 친절했어요. 그래도 일단 담당선생님과 유대감을 형성해야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4) 복지

<표 24> 심층면접 참여자의 교통수단 및 교통비

질의 내용		문항	빈도 수	%
교통수단	학교	자가용	23	100 %
		버스	0	0 %
		택시	0	0 %
	사회	자가용	12	100 %
		버스	0	0 %
		택시	0	0 %
교통비	학교	10만원 이하	3	13 %
		15만원 이하	8	34.7 %
		20만원 이하	11	47.8 %
		25만원 이하	1	4.3 %
	사회	10만원 이하	2	16.6 %
		15만원 이하	6	50 %
		20만원 이하	4	33.3 %
		25만원 이하	0	0 %

위의 <표 24>는 참여자들의 교통수단 및 교통비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 전원이 자가용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통비에 대한 질문에 학교문화예술강사는 20만원 이하로 교통비가 사용된다는 의견이 47.8 %로 가장 높으며, 사회문화예술강사도 교통비에 20만원 이하로 사용된다는 의견이 33.3 %로 가장 높다.



[그림 13] 심층면접 참여자의 교통수단 및 교통비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대상자 중 학교문화예술 강사 A와 학교문화예술 강사 I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학교 예술 강사 A : 저 같은 경우는 전남의 학교로 출근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수업을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매일 매일 다른 학교로 수업을 하러가는데 그 거리와 장소가 다 다르기에 자가용을 이용 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다른 서울을 제외한 도시권 지역의 예술 강사도 마찬 가지 일거 예요.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집주소와 학교의 거리로 교통비를 지급해주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덜 하죠.

학교 예술 강사 I : 저는 올해 운이 좋아서 집에서 10분 거리

의 학교에 배정되어서 그 학교를 제외하고  
 는 나머지는 자가용을 이용해요. 광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배정  
 된 적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교통비가 지원  
 되기는 하지만 그게 왕복 30킬로미터 이상  
 부터 지원되는 거라 광주는 거의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지원 되는 것이  
 라서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오후에 다른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기동력있게 움직이려  
 면 자가용을 이용하게 되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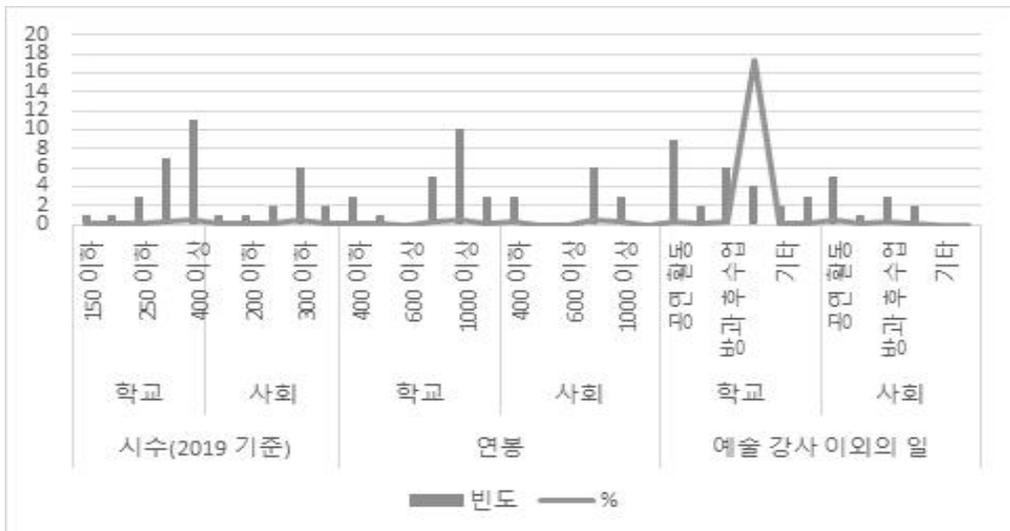
<표 25>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 시수 및 연봉 (단위: 시간, 만원)

질의 내용	구분	문항 및 키워드	빈도	%
시수(2019 기준)	학교	150 이하	1	4.34 %
		200 이하	1	4.34 %
		250 이하	3	13 %
		300 이하	7	30 %
		400 이상	11	47.8 %
	사회	150 이하	1	8.3 %
		200 이하	1	8.3 %
		250 이하	2	16.6 %
		300 이하	6	50 %
		400 이상	2	16.6 %
연봉	학교	400 이하	3	13 %
		500 이상	1	4.3 %
		600 이상	0	0 %

		800 이상	5	21.7 %
		1000 이상	10	43.4 %
		1500 이상	3	13 %
	사회	400 이하	3	25 %
		500 이상	0	0 %
		600 이상	0	0 %
		800 이상	6	50 %
1000 이상		3	25 %	
1500 이상		0	0 %	
예술 강사 이외의 일	학교	공연 활동	9	39.1 %
		예술 활동(창작)	2	8.6 %
		방과 후 수업	6	26 %
		교육활동	4	17.3
		기타	2	8.6 %
		하지 않음	3	13 %
	사회	공연 활동	5	41.6 %
		예술 활동(창작)	1	8.3 %
		방과 후 수업	3	25 %
		교육활동(학교)	2	16.6 %
		기타	0	0 %
		하지 않음	0	0 %

위의 <표 25>는 참여자의 연 시수와 그에 대한 연봉에 대한 질문과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외의 활동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2019년 기준으로 400 이상이라는 의견이 47.8 %로 가장 높으

며, 이에 대한 급여로는 1000만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43.4 %로 가장 높다. 사회문화예술강사는 300시수 이하라는 의견이 50 %로 가장 높으며, 이에 대한 급여로는 800만원 이상이라는 의견이 50 %로 가장 높다.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외에 다른 활동에 대한 질문에 학교문화예술강사는 공연활동을 한다는 의견이 39.1 %로 가장 높으며, 사회문화예술강사도 공연활동을 한다는 의견이 41.6 %로 가장 높다.



[그림 14] 심층면접 참여자의 연 시수 및 연봉

이에 대해 심층면접에서 참여자 중 사회문화예술강사 f와 학교문화예술강사 K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했다.

*사회문화예술강사 f : 저는 올해에 250정도의 시수를 배정 받았는데 이 시간을 방학을 제외 한 약 9개월 동안 나눠서 문화예술교육을 한다면 한 달에 27시간 정도이다. 저는 이일을 생계이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죠.*

그리고 한 복지기관 당 약 70시간을 운영을 하고 일주일 2시간 씩 진행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교육을 좀 더 집중하여 하는 것도 저의 생계적인 면에서 도요. 그래서 매년 좀 더 시수를 배정 받고 싶은데 그게 맘처럼 되지 않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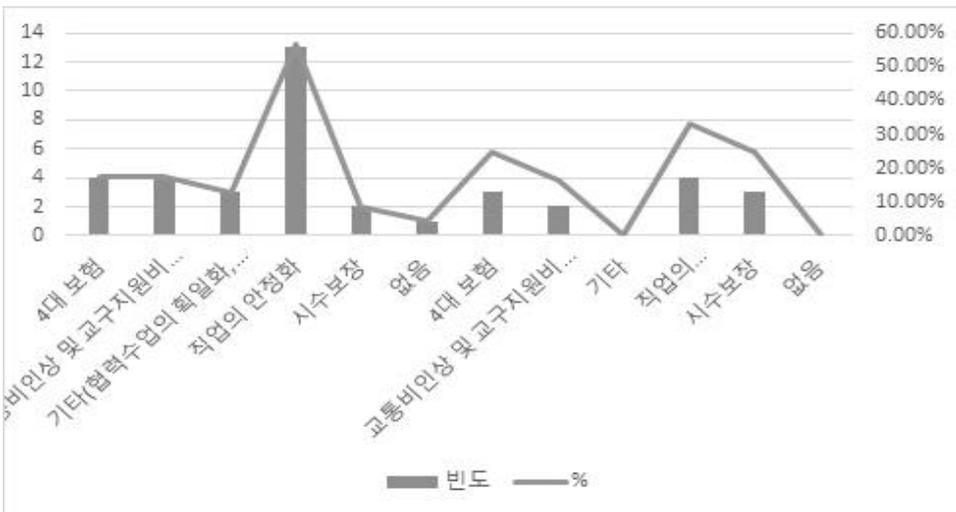
학교문화예술강사 A : 저는 되도록 재배치를 꼭 하려고 해요. 재배치를 하게 되면 교육을 할 때도 익숙해서 편하고 담당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과 교류가 더 편해요. 또 시수를 위해 다른 학교에 희망 신청을 하는 것에도 부담감이 덜하죠. 저는 이 일이 주 생계이기 때문에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수를 정해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표 26> 심층면접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중복)

질의 내용	구분	주요 키워드	빈도	%
개선사항	학교	4대 보험	4	17.3 %
		교통비인상 및 교구지원비 지원	4	17.3 %
		기타(협력수업의 획일화, 계약의 주체 획일화, 강사역량연수	3	13 %
		직업의 안정화	13	56.5 %

사회	시수보장	2	8.6 %
	없음	1	4.3 %
	4대 보험	3	25 %
	교통비인상 및 교구지원비 지원	2	16.6 %
	기타	0	0 %
	직업의 안정화(무기계약,12개월)	4	33.3 %
	시수보장	3	25 %
	없음	0	0 %

위의 <표 26>는 참여자의 사회 및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의 결과이다. 학교문화예술강사는 직업이 안정화에 대한 의견이 56.5 %로 가장 높으며, 사회문화예술강사도 직업의 안정화에 대한 의견이 33.3 %로 가장 높다. 기타의 의견으로는 협력수업의 획일화 되어야한다는 의견과 계약주체에 대한 획일화, 강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그림 15] 심층면접 참여자의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개선사항

이에 대해 참여자 중 학교문화예술강사 A와 학교문화예술강사G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학교문화예술강사 A :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이 사업이 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어있는데 10개월의 단기계약과 의료보험을 제외한 3대 보험만 보장이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이 생활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그게 정말 아쉬워요. 그리고 요즘 알바도 4대보험이 되는데....(중략)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 퇴직금은 못 받고 실업급여는 받기 어려워요. 이점이 개선되면 정말 괜찮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쉬워요.

학교문화예술강사 G : 일단 저는 이 일이 저의 생계이기에 매년 10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이 불안해요. 강사들이 불안하면 실제 문화예술 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을 불안해하지 않고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직업을 정말 좋아 하는 한 사람으로써 아이들에게 우리 음악의 즐거움을 주는 강사가 되고 싶고 우리 음악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싶다. 그걸 매년 불안함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

위의 <표 26>와 심층면접에 의하면 교육의 질적 개선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직업의 안정과 4대 보험 지원을 원한다고 답하였다.

## IV. 결론 및 제언

2005년에 시작된 문화예술교육은 수혜자와 지원규모가 커지는 양적 성장에 비해 질적으로 더딘 성장을 보인다. 따라서 질적 성장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은 교육의 장소에서 차이를 갖지만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삶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가치는 같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예술 강사를 대상으로 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문화예술교육 의무연수가 없어진 이후에 문화예술교육 연수의 참여율은 낮다.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 주최하는 문화예술교육 연수에 예술 강사들은 의무연수일 때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의무연수가 없어진 이후에 자발적으로 신청하여 연수를 받았다고 답한 예술 강사의 경우 학교문화예술 강사는 4.3 %, 사회문화예술 강사는 8.3 %로 낮은 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술 강사의 역량강화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에서 권고한 협력수업의 형태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사가 없이 예술 강사 단독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가 학교문화예술 강사는 30.4 %, 사회문화예술 강사는 3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획일적인 협력수업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평가 제도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평가 제도가 사라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및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파악 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평가제도에 대한 방안이 시급하다.

넷째,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강사 선발 기준이 다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의 경우 실기위주의 평가이며, 사회문

화예술교육은 면접, 즉 학습자의 특성 및 교사의 역량 위주의 평가이다. 따라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획일화된 강사 선발 기준이 필요하다.

다섯째,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관의 관계자들의 인식이다. 학교 및 복지기관은 관계자들이 예술 강사에게 가장 많이 요청하는 것이 학예회 및 발표회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78.2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60.8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예술교육의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여섯째, 문화예술강사들이 가장 희망하는 사항은 직업의 안정이다. 심층 면접 참여자들이 문화예술교육사업의 가장 개선되길 바라는 사항은 직업의 안정으로 학교문화예술교육은 56.6 %, 사회문화예술교육은 33.3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하여 예술 강사의 복지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위의 결론을 토대로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협력수업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론에 의하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권고하는 협력수업의 형태와 학교 및 복지기관의 현장에서 협력수업의 형태는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협력수업에 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교사와 강사, 학교 관계자 및 운영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공통된 개념의 협력수업이 형태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강사선발 기준 및 배정 제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업 주체의 통일이 필요하다. 두 사업의 주체는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이다. 하지만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진흥원에서 직접 운영하며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17개 시·도의 문화재단 및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등에서 운영한다. 따라서 운영기관의 획일화를 통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차이를 줄인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의 연속성과 질적 개선을 위하여 문화예술강사의 고용의 안정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예술강사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가장 희망하는 사항은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한 고용의 안정이다. 교육의 연속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 무기계약 또는 12개월 단위의 계약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 김광중(2017). 예술강사의 고용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남구(2007). 문화예술 정체성 확립과 문화예술교육의 방향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민영(2008).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예술강사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보라(2019).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통한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국악 수업 경험 고찰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소연(2019). 한국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변천과정과 개선방안 연구 학교 무용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제77권 4호.
- 김은지(2012). 학교문화예술교육이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인문계 여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 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주리(2017). 예술강사의 학습동아리 참여를 통한 확장학습 경험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김효희(2014). 학교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연구 예술강사와 고등학교 미술교사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노슬기(2018). 사회문화예술교육의 개념과 운영현황 분석 생활문화 개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경영학석사학위논문.
- 박소연, 홍성만, 임채홍(201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속성에 대한 정책 이해 관계자들의 인식 탐색. 문화예술교육연구 제6권 제4호.
- 백령(2011). 사회문화예술교육 분석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경희대학교문화예술연구소 2011사회문화예술교육 분석연구의 재구성.

- 신승빈(2011). 2011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보고논문.
- 심윤진(2018).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의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영화분야를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신주희(2011).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사례 연구 광주·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학위논문.
- 안혜진(2006).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도 연구. 추계예술대학원 예술경영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유지영(2015). 예술강사 평가체제의 문제와 개선방안 모색. 대한무용학회 논문집 제73권 1호.
- 이미선(2018). 고령화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및 발전 방안 연구 지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윤지(2017).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예술 담당자들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이태화(2016). 학교문화예술교육정책 시행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조대현, 윤관기(2018). 아동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예술강사의 자질과 역할을 중심으로. 예술교육연구 2018 제16권 제4호.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4). 2014 예술강사지원사업 효과분석 연구. 연구개발 자료 KACES-1440-R006.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6). 복지기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연구개발자료 KACES-1640-R007.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한국문화예술 실태조사. 연구보고서 KACES-1840-R004.
- 한소리(2017). 문화예술교육사 국악분야 교육과정과 운영 실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홍승용(2015).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연구 사진분

야를 중심으로.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부록 1] 심층면접 질의 내용

문항 번호	질의 내용	분류
1-1	선생님께서서는 학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참여자의 배경
1-2	선생님께서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1-3	선생님의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1-4	선생님께서 교육하시는 예술분야는 어떤 것 인가요?	
1-5	선생님께서 참여하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무엇 인가요?	
2-1	선생님께서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할 때 주로 어디에서 자료를 활용하시나요?	수업 및 평가
2-2	선생님께서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연수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었다면 어떤 프로그램 이었나요?	
2-3	그 교육연수가 선생님의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나요?	
2-4	선생님께서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할 때 협력수업을 하시나요?	
2-5	하신다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나요?	
2-6	협력수업을 위해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 하시나요?	
2-7	선생님께서 복지기관에서 진행하시는 교육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주로 어떤 수업을 진행하시나요?	
2-8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수업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2-9	현재 참여하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10	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11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평가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 있나요?	
3-1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강사 선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협의 및 선발, 배정
3-2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강사 선발에 대한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3-3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학교 및 기관의 배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4	학교 및 복지기관에서 선생님께 요청하는 것들은 어떤 것 인가요?	
3-5	선생님 학교 및 복지기관에 요청하시는 사항은 어떤 것이 있나요?	
4-1	선생님께서 올해 배정받은 시수는 어떻게 되시나요?	복지
4-2	선생님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연봉은 어떻게 되시나요?	
4-3	선생님께서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시나요? 또 그에 따른 교통비는 얼마인가요?	
4-4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이외에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4-5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